

#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 [주간전망] 외국인, 삼성전자, 실적... 결론은 선택과 집중

### 주간증시 전망 ▶ 4p 참고

이번주 KOSPI 지지선은 1,960선. 전약후강 패턴 예상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스 발표가 중요 분기점. 실적 기대, 가격/밸류 매력도 재평가 전환점  
 외국인 매도전환으로 외국인 순매수 사이클 약화 예상. 외국인도 지수보다 업종/종목별 대응력에 집중할 것  
 KOSPI 반등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업종/종목 선택에 집중. 숲보다 나무를 볼 때  
 차별적인 실적, 밸류, 가격메리트를 보유한 IT가전, 화학 업종 주목

### 증시일정 ▶ 2p

### FMT ▶ 14p

### 中國周刊 ▶ 16p

###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 18p

### Market Data Snap Shot ▶ 22p

### Chart Alarm ▶ 27p

1일 KOSPI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12% 하락한 1,973.57에 거래 마감

### 매매 및 자금동향 ▶ 33p



Technical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Global Market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2016년 04월 04일 월요일

### KOSPI

1973.57 ▼-22.28 (-1.12%)

	3/30	3/31	4/01
종가	2002.14	1995.85	1973.57
등락	7.23	-6.29	-22.28
등락폭(%)	0.36	-0.31	-1.12
거래량(백만주)	366	333	390
거래대금(십억원)	4,482	5,098	5,044
시가총액(십억원)	1,227,038	1,223,168	1,209,529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KOSDAQ

690.69 ▲2.31 (0.34%)

	3/30	3/31	4/01
종가	691.13	688.38	690.69
등락	4.63	-2.75	2.31
등락폭(%)	0.67	-0.40	0.34
거래량(백만주)	698	643	557
거래대금(십억원)	3,069	2,951	3,007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주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b>28</b>	<b>29</b>	<b>30</b>	<b>31</b>	<b>4/1</b>
美 2월 개인소비 (전기:0.1%, 발표:0.1%) 美 2월 개인소득 (전기:0.5%, 발표:0.1%) 美 2월 PCE Core (전기:0.3%, 발표:0.1%) EZ, 홍콩, 호주 부활절 휴장	美 3월 소비자대지수 (전기:94.0, 발표:96.2) 韓 3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98.0, 발표:100) 美 1월 케이스실러 주택 (전기:0.7%, 발표:0.5%)	美 3월 ADP 취업자 변동 (전기:205k, 발표:200k) 日 2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3.8%, 발표:-1.5%) 獨 3월 CPI 잠정 (전기:0.0%, 발표:0.3%) EZ 3월 소비자대지수 확정 (전기:-9.7, 발표:-9.7)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3월 시카고 PMI 제조업 (전기:47.6, 발표:53.6) 韓 2월 산업생산 (전기:-2.2%, 발표:2.4%) EZ 3월 CPI (전기:-0.2%, 발표:-0.1%)	美 3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49.5, 발표:51.8) 美 3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전기:245k, 발표:215k) 中 3월 Caixin 제조업 PMI (전기:48.0, 발표:48.3) 韓 3월 CPI (전기:1.3%, 발표:1.0%) 韓 3월 수출 (전기:-12.20%, 발표:-8.2%)
<b>4</b>	<b>5</b>	<b>6</b>	<b>7</b>	<b>8</b>
美 2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2.8%, 예상:-2.8%) 中 國/홍콩 증시 휴장(침명절)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美 3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4, 예상:54.1) EZ 2월 소매판매 (전기:2.0%, 예상:1.9%) EZ 3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 (전기:54.0, 예상:54.0)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獨 2월 산업생산 (전기:2.2%, 예상:0.4%) 中 3월 Caixin 서비스업 PMI (전기:51.2, 예상:-- )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3월 외환보유고 (전기:\$3202.3b, 예상:\$5205.5b)	美 2월 도매채고 (전기:0.3%, 예상:-0.2%)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전기:1.8%, 예상:-- ) 日 3월 소비자대지수 (전기:40.1, 예상:40.4)
<b>11</b>	<b>12</b>	<b>13</b>	<b>14</b>	<b>15</b>
中 3월 CPI (전기:2.3%, 예상:2.5%) 中 3월 PPI (전기:-4.9%, 예상:-4.7%) 中 3월 사회용자총액 CNY(10~15일) (전기:780.2b, 예상:1450.0b) 中 3월 M2(10~15일) (전기:13.3%, 예상:13.5%)	獨 3월 CPI 확정 (전기:0.3%, 예상:-- ) 韓 3월 수출물가지수 (전기:-2.0%, 예상:-- ) 韓 3월 수입물가지수 (전기:-7.4%, 예상:-- )	美 3월 소매판매 (전기:-0.1%, 예상:0.3%) 美 2월 기업채고 (전기:0.1%, 예상:-0.2%) 中 3월 수출 (전기:-25.4%, 예상:3.3%) 中 3월 수입 (전기:-13.8%, 예상:-9.3%) 美 베이징북 공개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3월 CPI (전기:-0.2%, 예상:0.2%) 美 3월 CPI (식품에너지제외) (전기:0.3%, 예상:0.2%) EZ 3월 CPI 확정 (전기:-- , 예상:-- )	美 3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0.1%)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91.0, 예상:-- ) 中 1Q GDP (전기:6.8%, 예상:-- ) 中 3월 산업생산 (전기:-- , 예상:-- ) 中 3월 소매판매 (전기:-- , 예상:-- )
<b>18</b>	<b>19</b>	<b>20</b>	<b>21</b>	<b>22</b>
美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기:58.0, 예상:-- ) 韓 2월 M2 (전기:1.1%, 예상:-- )	美 3월 주택착공건수 (전기:5.2%, 예상:-- ) 美 3월 건축허가 (전기:-3.1%, 예상:-- ) EZ 4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10.6, 예상:-- ) 韓 금통위	美 3월 기존주택매매 (전기:5.08m, 예상:-- ) 日 3월 수출 (전기:-4.0%, 예상:-- ) 日 3월 수입 (전기:-14.2%, 예상:-- )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기:0.5%, 예상:-- ) EZ 4월 소비자대지수 예상 (전기:-- , 예상:-- ) ECB 통화정책회의	美 4월 마켓 PMI 제조업 (전기:51.5, 예상:-- ) EZ 4월 마켓 PMI 제조업 잠정 (전기:51.6, 예상:-- ) EZ 4월 마켓 PMI 서비스업 잠정 (전기:-- , 예상:-- ) 日 4월 넷케이 PMI 제조업 잠정 (전기:49.1, 예상:-- )
<b>25</b>	<b>26</b>	<b>27</b>	<b>28</b>	<b>29</b>
美 3월 신규주택매매 (전기:2.0%, 예상:-- ) 獨 4월 IFO 기업환경 (전기:106.7, 예상:-- )	美 3월 내구재주문 잠정 (전기:-- , 예상:-- ) 美 2월 S&P/CS 20개 도시 SA (전기:0.8%, 예상:-- ) 美 4월 소비자대지수 (전기:96.2, 예상:-- ) 韓 1Q GDP 잠정 (전기:3.1%, 예상:-- )	美 3월 미결주택매매 (전기:3.5%, 예상:-- ) 獨 4월 Gfk 소비자대지수 (전기:9.4, 예상:-- ) 韓 4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100, 예상:-- )	美 1Q GDP (전기:1.4%, 예상:-- ) 美 1Q 개인소비 예상 (전기:2.4%, 예상:-- ) EZ 4월 소비자대지수 확정 (전기:-- , 예상:-- ) 日 4월 CPI (신선품제외) (전기:-0.3%, 예상:-- ) 日 3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 , 예상:-- )	美 3월 개인소득 (전기:0.2%, 예상:-- ) 美 3월 PCE 근원 MoM (전기:0.1%, 예상:-- )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 , 예상:-- ) EZ 1Q GDP SA 예상 (전기:1.6%, 예상:-- ) EZ 4월 CPI (전기:-- ,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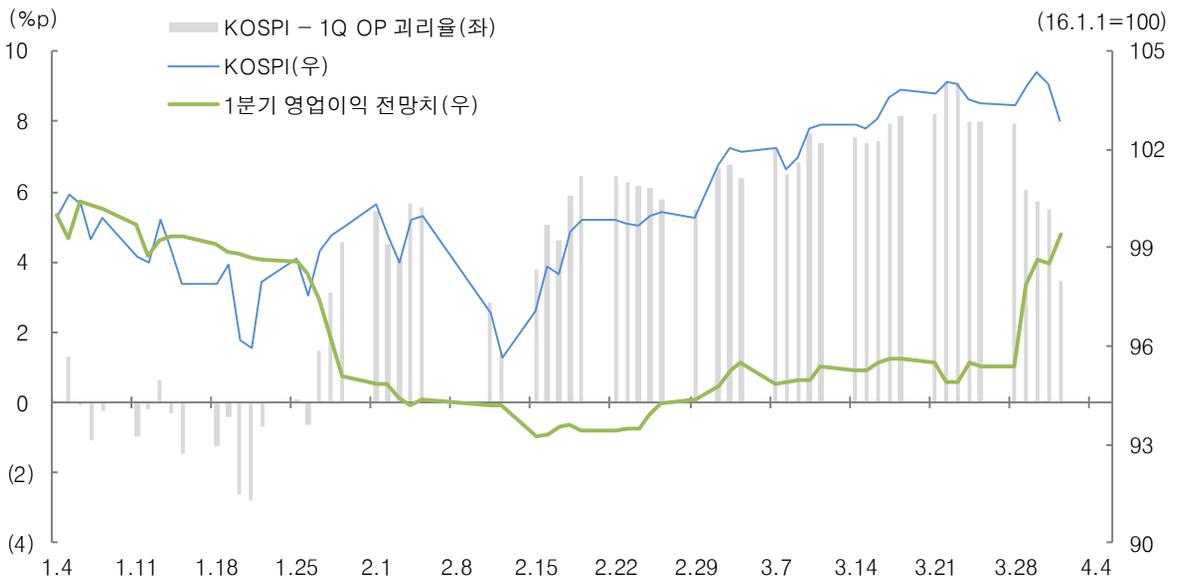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 KOSPI 전망

- 유가 급등,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코스피 기술적 반등 가능.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 시점. 정책 신뢰가 가장 강했던 일본에서 정책 실망이 발생. 추가 정책이 나오더라도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 약화는 2~3분기 대표적인 조정요인으로 예상했던 변수. 정책 신뢰 약화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등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코스피 상승 가능성 낮아져
- 반등시 성장주 비중 축소, 수출주(IT, 자동차)와 가치주(Low-Vol)로 포트폴리오 압축

## Today's Key Chart

실적 개선 & 주가 조정 = 실적대비 가격부담 빠르게 완화



- 외국인 매도전환으로 외국인 순매수 사이클 약화 예상. 중기적 관점에서 KOSPI 2,000선 회복시도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 비중 축소, 포트폴리오 안정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확대 가능성 낮아. 실적시즌을 맞아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며 밸류부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 외국인도 지수보단 업종/종목별 대응력에 집중할 것
- 이번주 KOSPI 지지선은 1,960선. 전약후강 패턴 예상. 지난주 급락의 충격을 받고 단기 반등시도 가능성 높아.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نس 발표가 중요 분기점. 실적 기대, 가격/밸류 매력도 재평가 전환점
- KOSPI 반등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업종/종목 선택에 집중. 차별적인 실적, 밸류, 가격메리트를 보유한 IT가전, 화학 업종 주목

## 주간 증시 전망

### [주간전망] 외국인, 삼성전자, 실적... 결론은 선택과 집중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 ※ 갑작스러운 외국인 대량매도. 그 이유는?

KOSPI 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은 컸다. 지난 주말 이틀 간 외국인 매도전환에 KOSPI는 1,970선까지 레벨다운되었다. 글로벌 유동성 유입강도가 크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만큼 대규모 매도가 출회된 나라는 없다.

한국 증시에서만 외국인 대량매도가 출회된 이유는 1) 밸류부담 : 과거 평균대비 밸류 수준, 2) 환율 변동성 :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등락, 3) 실적 개선 업종의 가격/밸류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적인 변수가 외국인 차익실현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 외국인 매매의 시사점. 중기 : KOSPI 반등시 비중축소. 단기 : 트레이딩 영역 진입  
6주만에 외국인 순매도 전환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KOSPI의 추가 상승폭/탄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향후 대외변수가 가세할 경우 외국인 매매패턴의 변화가 변동성 증폭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KOSPI가 다시 한번 2,000선 회복/안착시도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 비중 축소, 포트폴리오 안정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증시에만 집중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격/밸류 부담, 환율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단기 외국인 매도는 잦아들 것이다.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주가 조정으로 가격/밸류 부담 완화세가 진행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종/종목별 트레이딩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 KOSPI 가격/밸류부담 완화. 업종별 대응 여지 높아져. IT가전, 화학 업종 주목

지난주 KOSPI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48조원(4.2%) 상향조정되었다. 삼성전자 영향이 컸지만, 소재, 산업재, IT 업종의 이익전망치가 동반 개선된 결과이다. 연초 이후 1분기 영업이익과 KOSPI 간의 괴리율은 9.13%p(3월 22일)에서 3.45%p로 축소되었다. 가격/밸류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한 업종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다. 가격, 밸류, 이익전망을 감안할 때 4월 유망업종인 IT가전, 화학 업종이 매력적이다.

#### ※ [주간전망] 숲보다 나무(IT가전, 화학)에 집중.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분기점

이번주 KOSPI는 단기 급락의 충격을 딛고, 실적과 주가, 밸류 간의 함수 속에 매력도가 높은 업종/종목을 찾는데 집중할 때이다. 7일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가이던스 발표가 다시 한 번 실적기대감을 자극하고, 실적대비 주가매력도가 높은 업종/종목들의 반등시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당분간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갑작스러운 외국인 대량매도, 흔들린 KOSPI

지난주 후반은 KOSPI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중반까지 옐런발 훈풍에 힘입어 2,000선 회복시도에 나섰던 KOSPI는 지난주 후반 단 이틀 간의 외국인 매도전환에 1,970선으로 레벨다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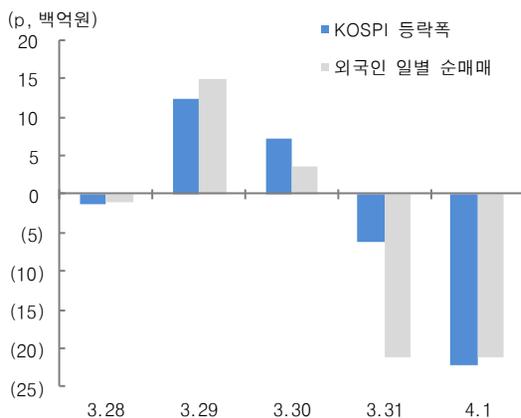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매매에 KOSPI는 일희일비한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국, 신흥 아시아로 유입강도가 크게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EPFR 데이터를 보면, 신흥국 펀드에서 5주만에 글로벌 자금이 이탈했다(6.1억달러). GEM 펀드로 4.1억달러 유입되었지만, Asia Ex japan 펀드에서 11.5억달러가 유출된데 따른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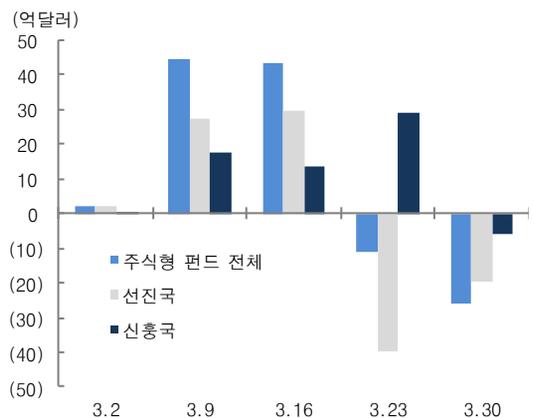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증시만큼 대규모 매도가 출회된 나라는 없다.

그림 1. 지난주 KOSPI 등락과 외국인 매매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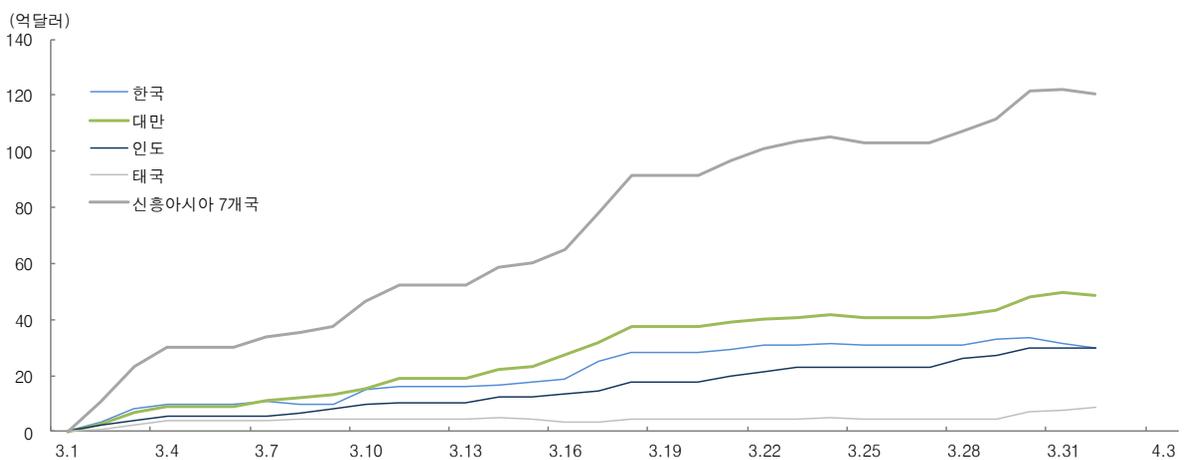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신흥국 펀드에서 5주만에 자금 유출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신흥아시아 중 주간 기준 매도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증시에 외국인 대량매도 이유 세가지

신흥 아시아 7개국가의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 순매수 강도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도전환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뿐이다.

특히, 주 후반 이틀 연속 매도가 출회된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이처럼 한국 증시에서만 외국인 대량매도가 출회된 이유는 세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첫째, 밸류부담

KOSPI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력적이다. 글로벌 지역 중 이머징 아시아의 매력도가 높은 가운데서도 한국은 10.78배로 중국 다음의 밸류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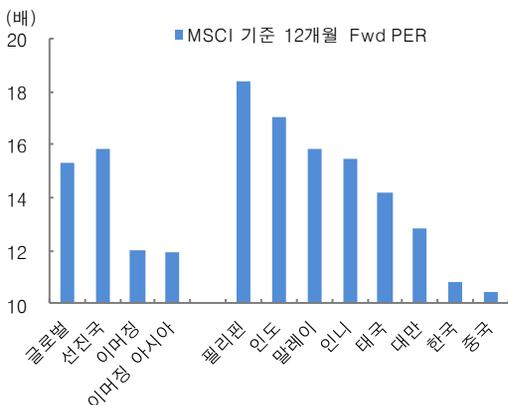
그러나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다른 양상이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이후) 평균대비 현재(3월 28일 기준)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6.96%로 태국 다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레벨다운된 12개월 Fwd EPS 영향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평균대비 현재 한국의 12개월 Fwd EPS는 16.3% 하향조정된 수준이다. 신흥아시아 중 최하위이다.

#### 둘째, 환율 변동성

외국인의 매매패턴 특히, 비차익 매매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 외국인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1월 21일은 원/달러 환율이 1차 고점을 기록했을 당시였고, 원/달러 환율 하락시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는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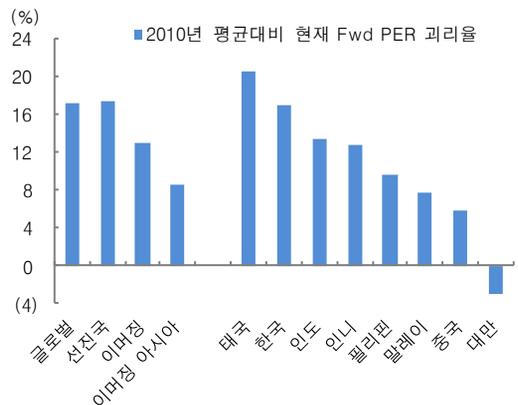
그러나 지난주 외국인 원/달러 환율 1,150원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매도전환이 나타났다. 금요일에는 1,150원선 회복의 영향으로 장 후반까지 비차익 매도가 강화되었다.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원/달러 환율 레벨다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그림 4. 이머징 아시아 국가별 12M Fwd PER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한국 밸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009년 이후 원/달러 환율 구간별 외국인 매매패턴을 보면 원/달러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매수/매도가 엇갈린다. 1,150원선 이탈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반면, 1,150원 ~ 1,200원선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출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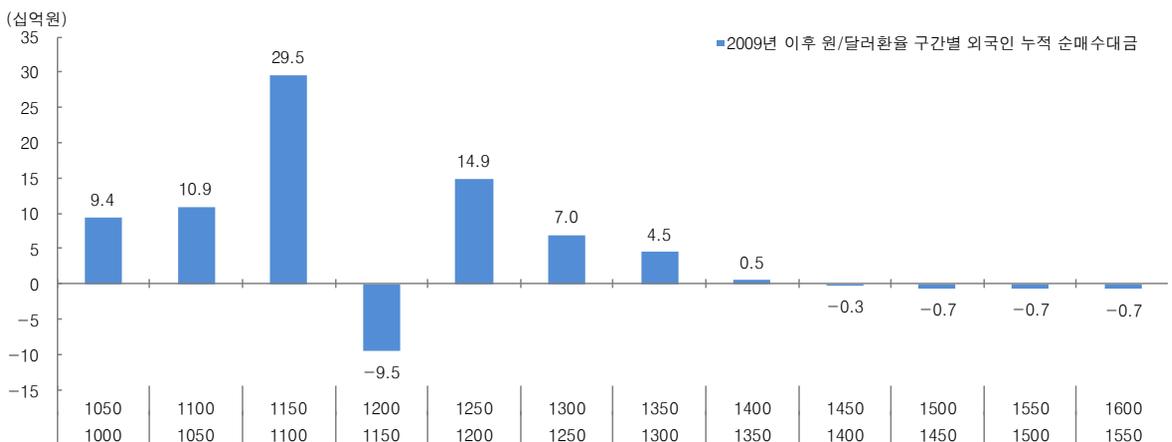
글로벌 안도락리가 상당부분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미국이 금리인상과 경제지표 개선 간의 줄다리기를 하며, 한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원/달러 환율 레벨다운 기대감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반등을 염두에 둔 차익실현 욕구가 크다.

셋째, 실적 개선 업종의 가격/밸류 부담

KOSPI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지수 간의 괴리는 물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들도 주가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실적 개선 업종들 대상으로 살펴본 1월 21일과 2월 12일 이후 영업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격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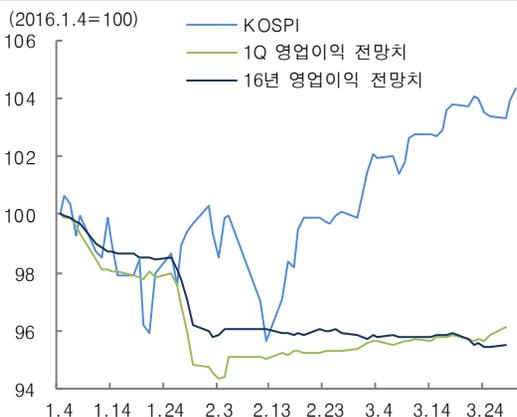
특히, 그동안 KOSPI 상승을 주도했던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크다. KOSPI 밸류부담을 가중시키고,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한 변수이다.

그림 6. 원/달러 환율 1,150 원선이 외국인 매매패턴의 변곡점. 원/달러 환율 레벨다운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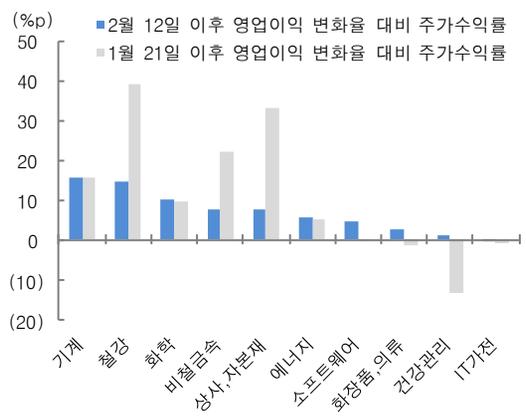
자료: WiseFn,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영업이익의 전망치와 KOSPI 괴리를 확대



주: 3월 30일 증가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실적 개선 업종군도 피해갈 수 없는 주가부담



주: 3월 30일 증가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외국인 매매의 시사점. 중기 : KOSPI 반등시 비중축소

6주만에 외국인 순매도 전환은 외국인의 영향력, 장악력이 절대적인 KOSPI의 추가 상승폭/탄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32거래일만에 외국인 비차익 매도전환은 추가적인 매수강도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다. 외국인 비차익매매에서 중요한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다. 1,150원선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 유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선행성을 보였던 외국인 선물매매패턴 변화(매도 우위)에 이어 나타난 외국인 비차익 매도전환은 외국인 매매패턴의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정점을 통과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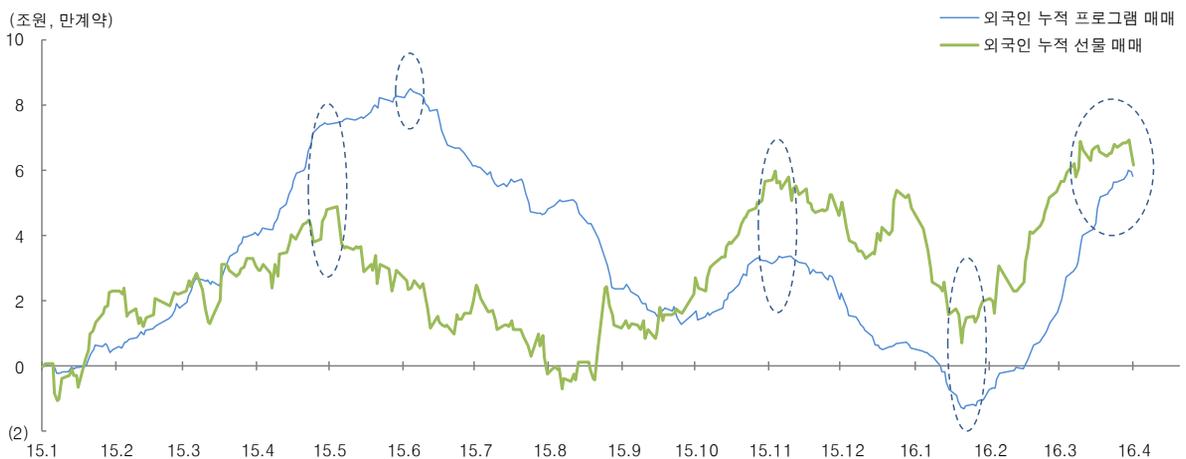
향후 대외변수가 가세할 경우 외국인 매매패턴의 변화가 변동성 증폭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주 외국인 매도전환, 대규모 매도는 실적시즌과 맞물린 국내 변수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4월 들어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원/달러 환율 반등, 리스크 지표 반등시도가 가시화된다면 외국인 매도강도는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매도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큰 흐름상 균열, 변화의 조짐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KOSPI 반등시, 2,000선 회복시도가 가시화될 경우 위험자산 비중 축소,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매매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외국인 선물매수강도 둔화에 이은 비차익 매도전환. 외국인 매매패턴의 사이클 전환 가능성



자료: KRX,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외국인 매매의 시사점. 단기 : 트레이딩 가능 영역으로 진입

한편, 단기적으로 한국증시에만 집중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격/밸류 부담, 환율변동성이 문제였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단기 외국인 매도는 찾아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지표 결과나 리스크 지표의 흐름을 보면, 대외변수가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MRI)도 저점 이후 급반등세가 주춤해졌다.

즉, 대외불확실성만 아니라면 국내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증시와 KOSPI 간의 단기 괴리가 축소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주가 조정으로 가격/밸류 부담 완화세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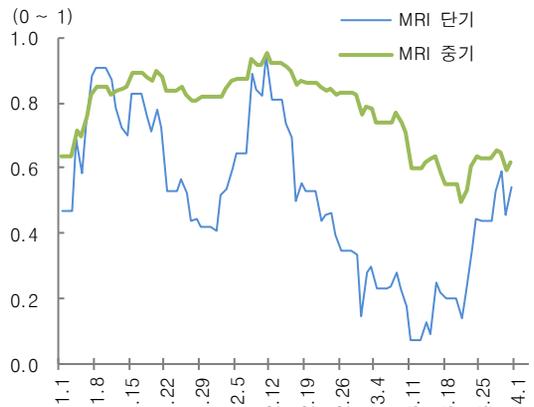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대량매도보다는 업종/종목별 트레이딩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0.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신흥국, 선진국 동반 상승세



자료: CFI,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Macro Risk Index(MRI). 1차 반등 이후 반등탄력 주춤



자료: CFI,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가격/밸류부담 완화. 업종별 대응 여지 높아져

지난주 KOSPI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주만에 1.48조원(4.2%) 상향조정되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29조원을 회복한 것이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주 동안 4,860억원 상향조정되며 전체 영업이익 개선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보험, 운송, 조선, 에너지, IT가전, 소프트웨어, 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재, IT 중심의 이익전망치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실적 개선세와는 달리 지난주 KOSPI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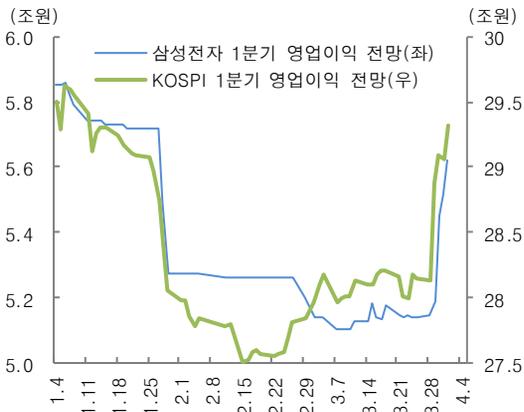
이 영향으로 KOSPI의 가격/밸류 부담은 일정부분 완화되었다. 연초 이후 1분기 영업이익과 KOSPI 간의 괴리율은 9.13%p(3월 22일)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KOSPI 1,970선 레벨다운과 1분기 영업이익 29조원 회복이 크로스되면서 괴리율이 3.45%p까지 축소되었다.

12개월 Fwd PER(WiseFn 기준)도 10.9배로 레벨다운되었다. 3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11배를 하회한 것이다. 가격조정과 더불어 EPS 상향조정의 영향이 컸다. 4월 1일 증가 기준 KOSPI 12개월 Fwd PER 11배는 1,990선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번주 본격적인 프리어닝 시즌 돌입으로 실적 상향조정세가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KOSPI 추가 하락압력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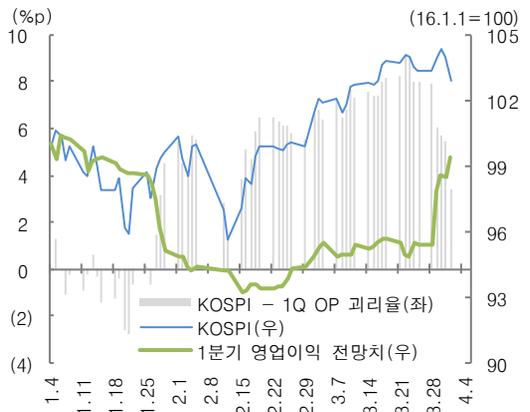
특히, 업종별로는 가격/밸류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한 업종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프리어닝시즌이 시작되고, 실적이 가시화될수록 가격/밸류 매력도에 따른 업종/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림 12. KOSPI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한 주동안 1.18조원 상향조정. 삼성전자는 4,860억원 상향조정**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실적대비 주가 괴리를 빠르게 축소, 9.13%에서 3.45%p로 레벨다운**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실적전망, 가격메리트를 감안할 때 IT가전, 화학 매력도 높아

실적 개선 업종들 중, 최근 가격조정을 통해 가격/밸류 부담이 크게 완화되거나 매력도가 높아진 업종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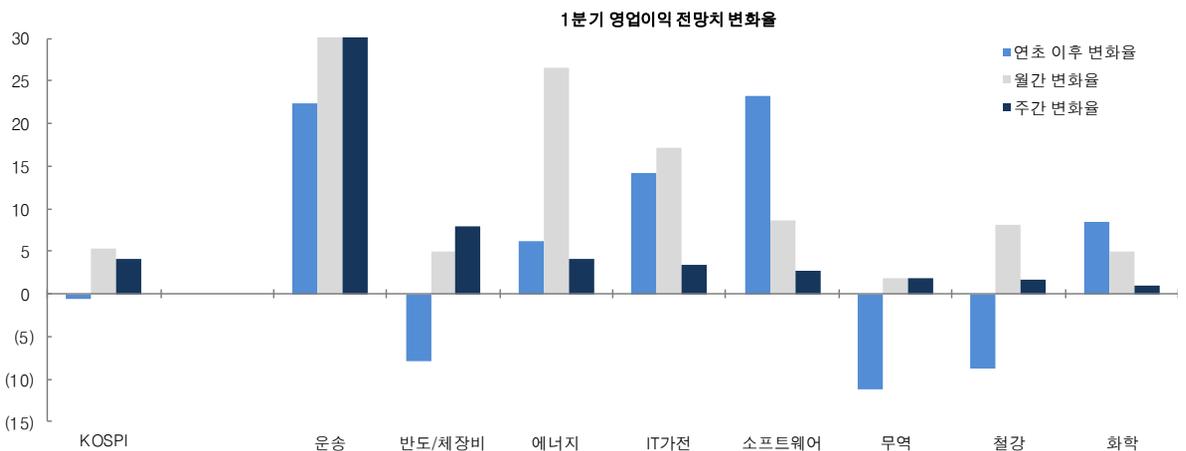
1차적으로 주간, 월간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을 추출했다. 운송, 반도체/장비, 에너지, IT가전, 소프트웨어, 무역, 철강, 화학 업종이 있다.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변화율과 실적 변화율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주간, 월간 모두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유효한 업종으로는 운송, IT가전, 소프트웨어, 화학 업종이 추출되었다.

특히, IT가전, 화학 업종은 2분기,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까지 상향조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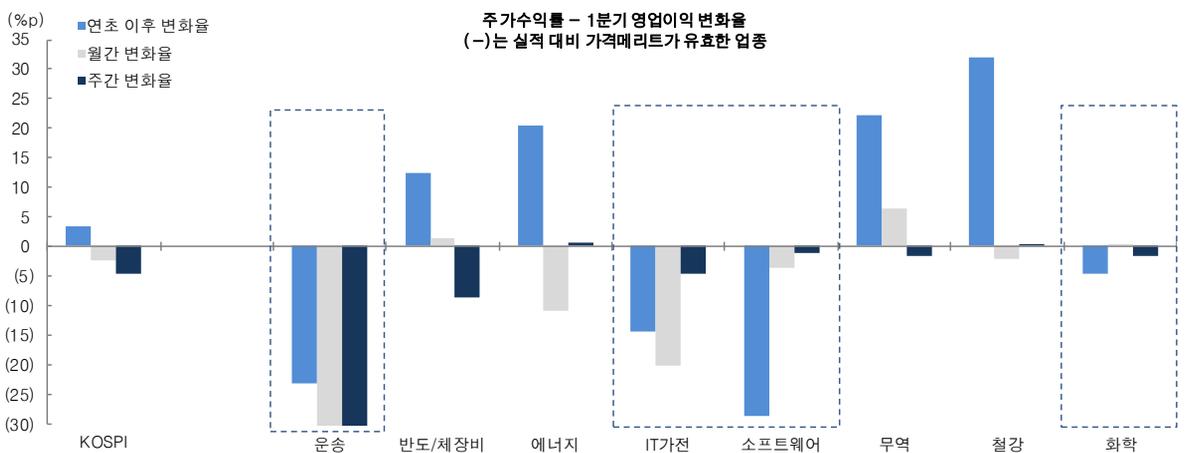
1분기 실적시즌에서 가격메리트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4. 주간, 월간 기준 실적 개선 업종군 : 운송, 반도체/장비, 에너지, IT가전, 소프트웨어, 무역, 철강,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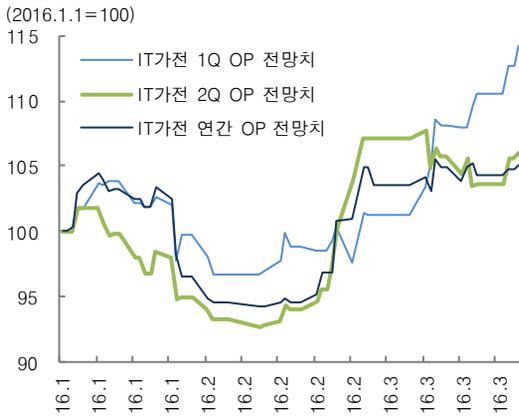
자료: KRX,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연간, 주간, 월간 기준 실적대비 가격메리트가 유효한 업종군 : 운송, IT가전, 소프트웨어,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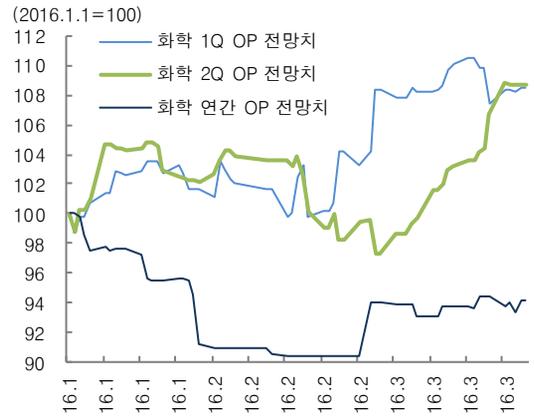
자료: KRX,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IT가전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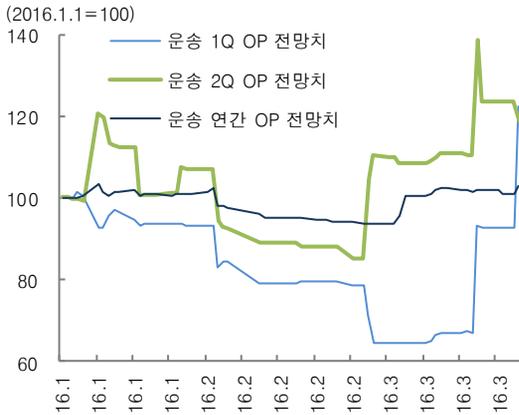
자료: CFI,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화학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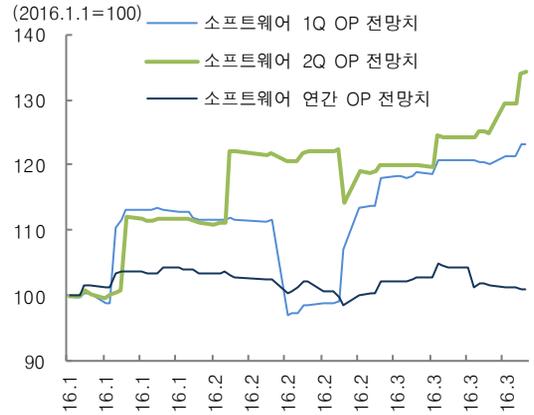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운송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자료: CFI,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소프트웨어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전망] 숲보다 나무에 집중할 때. IT가전, 화학, 선택과 집중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스 발표가 분기점

이번주 KOSPI는 지난주 후반 단기 급락의 충격을 딛고, 반등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중단되었고, 환율변수에 따라 외국인 매매패턴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즉, 지수의 반등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적과 주가, 밸류 간의 함수 속에 매력도가 높은 업종/종목을 찾는데 집중할 때라는 판단이다.

주 초반 미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 중화권 증시 휴장은 KOSPI 단기 지지력 테스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높인다.

120일 이동평균선과 12개월 Fwd PER 10.8배(전고점)이 위치한 KOSPI 1,960선이 중요 지지선이다. 실적 개선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경기선, 펀더멘털선과 밸류에이션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7일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가이드스 발표가 다음주 증시에 있어 중요 변곡점이다.

KOSPI 실적 기대감, 실적대비 주가 매력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밸류 매력도가 높은 업종/종목들의 반등시도에 힘이 실릴 것이다.

당분간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림 20. 글로벌 주요증시 일정

일자	경제지표	기타
4/4	美 2월 내구재주문 확정 (전기:-2.8%, 예상:-2.8%)	중국/홍콩/대만 증시 휴장(칭밍제)
	美 2월 제조업주주 (전기:1.6%, 예상:-1.8%)	
	EZ 4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 (전기:5.5, 예상:7.0)	
	EZ 2월 PPI (전기:-2.9%, 예상:-4.0%)	
5	美 3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4, 예상:54.1)	인도, 호주 정책금리 결정 대만 증시 휴장(칭밍제)
	美 3월 MARKET PMI 서비스업 확정 (전기:51.0, 예상:51.2)	
	EZ 3월 MARKET PMI 서비스업 확정 (전기:54.0, 예상:54.0)	
6	EZ 2월 소매판매 (전기:2.0%, 예상:1.9%)	3월 FOMC 의사록 발표
	獨 2월 산업생산 (전기:2.2%, 예상:0.4%)	
7	中 3월 Caixin PMI 서비스업 (전기:51.2, 예상:—)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스 발표 ECB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美 4/2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전기:276k, 예상:270k) 中 3월 외환보유고 (전기:\$3202.3b, 예상:\$5205.5b)	
8	美 2월 도매재고 (전기:0.3%, 예상:-0.2%)	Fed Yellen, Greenspan, Bernanke, Volcker 세미나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전기:1.8%, 예상:—) 日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40.1, 예상:40.4)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Financial Market Trend

## 외국인 순매도 전환. KOSPI는 1,970선으로...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전주 동향(증가기준): 1,983.81~1,996.81pt

급주 전망: 1,960~2,000pt.

- 3월 25일 이후 4월 1일까지 KOSPI 지수 0.52% 하락, 1,973.57p로 마감. 엘런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KOSPI는 작년 1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2,000p 회복. 그러나 달러 약세 여파에 원/달러 환율이 연일 약세를 기록하며 3월 31일 장 중 1,150원 선 이탈. 외국인 차익실현을 자극. 외국인 대량 순매도로 이어졌고, 단 이틀만에 1,970선으로 레벨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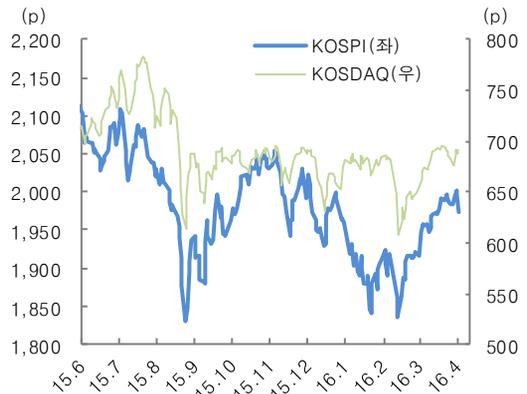
- 3월 25일 이후 4월 1일까지 KOSDAQ 지수는 1.1% 상승, 690.69p로 마감. KOSPI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KOSDAQ은 690p 안착. 700p에 근접할 때마다 KOSDAQ은 기관,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단기 가격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 KOSPI 내 업종별 등락에서는 내수주, 경기방어주 중심으로 강세 기록.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은행, 의약품 업종이 2% 상승률을 보임. 반면, 음식료, 운수장비, 섬유, 의복, 유통, 건설,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 수출주와 환율 민감주들이 1% 이상 하락 마감. 실적 시즌이 가까워오면서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는 업종, 환율 하락여파로 수출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는 양상. 본격적인 어닝시즌 돌입시 업종/종목별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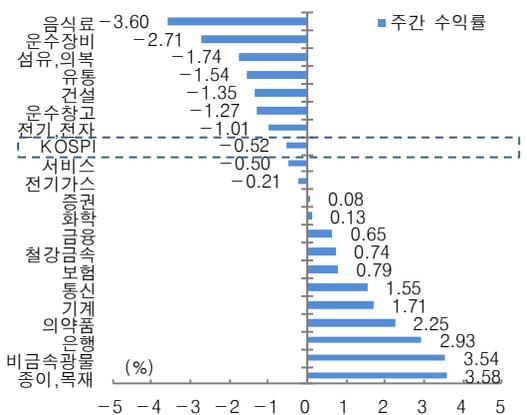
- 외국인 7주만에 순매도 전환. 누적 순매도규모는 3,421억원. 31일, 4월 1일 이틀만에 4,200억원 가량 매도. 밸류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락이 외국인 차익실현 심리 자극. 32거래일만에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도 전환. 기관의 매도규모는 줄어들었지만, 6주 연속 순매도 이어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 영향으로 KOSPI 1,970선으로 레벨다운

- 외국인 매도전환에 흔들리는 KOSPI. 밸류, 가격 부담 완화 이후 실적 기대감에 반등시도 예상. 전약 후강 패턴. 7일 삼성전자 실적가이던스 발표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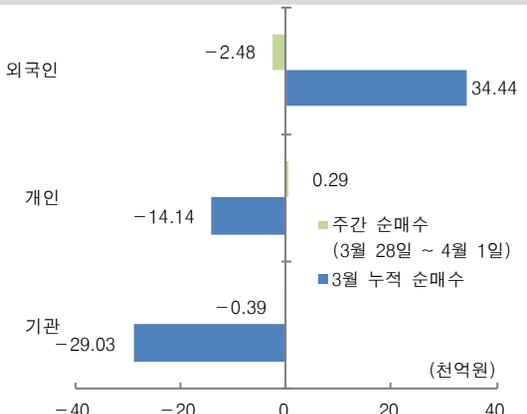
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



주간 업종별 수익률(3월 25일 이후)



주간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원/달러 환율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전주 동향(일평균기준): 1,143.5~1,166.2원

금주 전망: 1,135~1,180원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하락 흐름 시현. 주 초반 미 PCE물가상승률 하락 전환, 엘런 연준의장의 완화적 연설 등의 영향으로 연준의 4월 금리 인상 기대는 약화되고 달러가치는 약세 전환됨. 이에 원/달러 환율 또한 1,140원대로 빠르게 하락. 하지만 주 후반 들어 미 고용지표 경계감, 중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반등하며 달러당 1,154.2원에 장을 마감

금주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선호가 약화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 연준 의사록 발표를 앞둔 경계감, 국제유가 하락, 외국인 주식 매도세 지속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다만 연준 의사록에서도 완화적 입장을 확인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빠르게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고채 수익률(3년물)

Fixed Income Strategist 박혁수 bondpark@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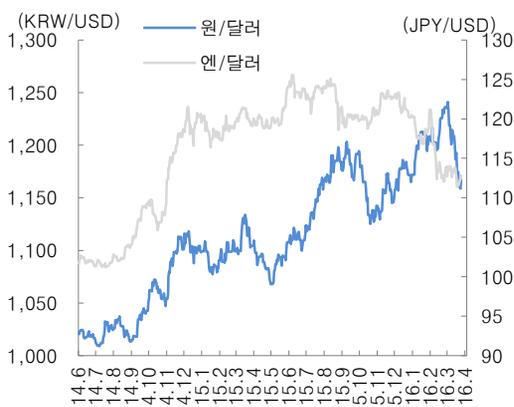
3월 동향(종가기준):1.444~1.550%

4월 전망:1.40~1.60%

3월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가 여전히 금리하락을 지지했지만 매파적 금통위 결과와 연준위원들의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매파적 입장, 글로벌 리스크 온 분위기에 따른 금리 수준 부담으로 월 중후반까지 약세를 나타냄. 그러나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화당국에 주문하겠다는 선거공약, 엘런의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도비쉬한 언급, 외인의 선물매수로 금리 상승 폭을 줄여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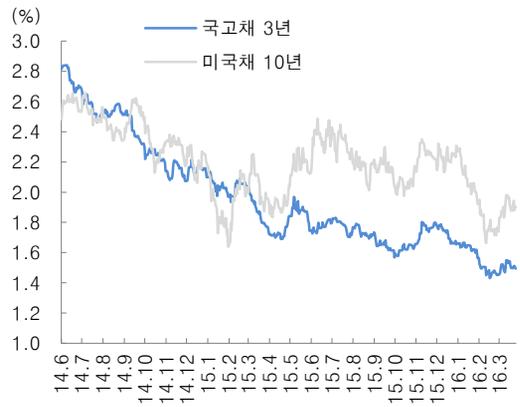
4월 채권시장은 여전히 강세재료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호재 선반영에 따른 금리 수준 부담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며 금리하락을 제한할 것임. 따라서 4월 금통위에서 시장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때 추세가 아닌 레벨조정의 유의할 필요가 있음. 4월중 시장금리는 재료노출에 따른 모멘텀 부족으로 대내재료보다 국내 경기 및 통화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지표 및 가격 변수에 연동한 천수답 장세가 예상됨. 한편, 외국인의 선물매매는 시장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그림 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및 미국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中國周刊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 1. Summary

[Preview] 지난주 3월 통계국 PMI지수가 8개월만에 50% 상회했고,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 자금 증시 투입이 발표되면서 상해종합지수 3,000P선 안착  
 [Review] 이번주 청명절(4월2일~4일) 연휴에 따른 상해종합지수 4일 휴장하며, 특별한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 2. China Weekly Indicator

### 주간 중국 증시 등락률

주요지수	종가	주간등락폭	주간등락률(%)
상해종합지수	3009.5	30.1 ▲	1.0 ▲
심천종합지수	1901.5	16.3 ▲	0.9 ▲
호삼300지수	3221.9	24.1 ▲	0.8 ▲
차스닥	2205.4	-10.7 ▼	-0.5 ▼
항셱지수	8842.9	141.7 ▲	1.6 ▲
항셱지수	20498.9	153.3 ▲	0.8 ▲

### 주간 업종 수익률(%)

Best 5	수익률	Worst 5	수익률
비철금속	4.2	국방	-0.5
석유화학	3.9	미디어	-0.3
건축자재	3.2	증권	-0.1
기타	2.4	농림어목	0.1
운송	2.2	부동산	0.1

### Valuation(12m fwd)

	상해종합지수	항셱 H 지수
16 P/E	10.68	9.49
16 EPS증가율	8.60	7.08
16 ROE	11.55	12.11
16 P/B	1.23	1.15
16 배당수익률	3.11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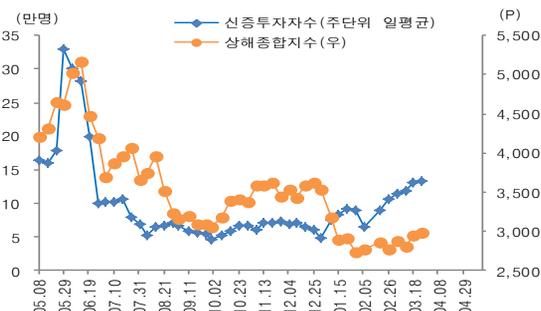
### 상해종합 주요업종 주간 수익률

	종가	수익률
은행	공상은행	4.3 ▲
	건설은행	4.8 ▲
	중국은행	3.4 ▲
석유	페트로차이나	7.7 ▲
	시노펙	4.9 ▲
철강	바오산스틸	5.3 ▲
	안강스틸	4.1 ▲
	무한철강	3.0 ▲
운수	중국해운컨테이너	4.7 ▲
	중해발전	6.7 ▼
	차이나코스코홀딩스	6.2 ▼

### 항셱H 주간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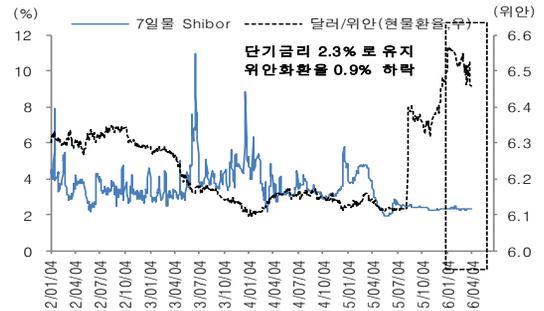
종목	종가	수익률
만달상업	45.9	21.3 ▲
중국교통건설	9.3	14.5 ▲
용원전력	5.7	10.6 ▲
시노팜	33.9	9.5 ▲
안휘해라시멘트	20.7	8.2 ▲
중국재산보험	14.0	7.2 ▲
중국국제항공	5.6	7.1 ▲
중국중철	5.9	6.7 ▲
시노펙	5.1	5.6 ▲
중광핵전력	2.6	4.8 ▲
HTSC	17.8	3.7 ▲

그림 1 신증투자자수 전주대비 13.4% 증가(3월25일 기준)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지난주 위안화 환율 0.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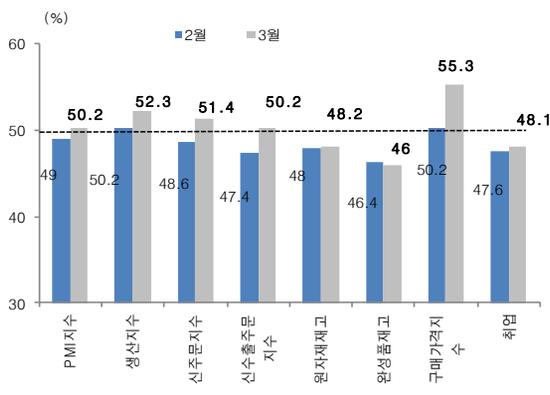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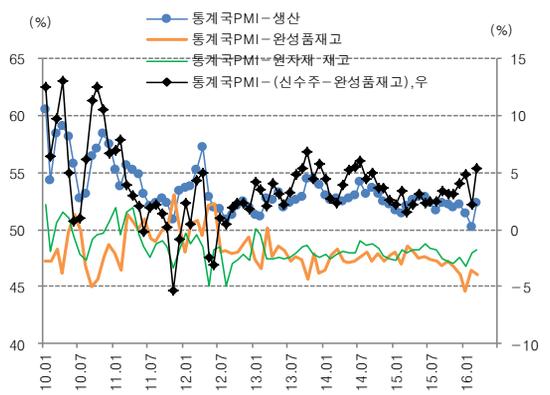
- 지난 1일 발표된 중국 3월 통계국 제조업 PMI지수 50.2%로 예상치(49.4%) 및 전월(49%)대비 반등 성공했고 8개월만에 50% 상회. 항목별로 생산, 신수주 및 신수출 주문지수 각각 전월대비 2.1%p, 2.8%p, 2.8%p 상승하며 모두 50% 상회.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도 49.7%로 예상치(48.3%) 및 전월(48%)대비 반등. 또한 3월 통계국 서비스업 PMI지수는 53.8%로 전월(52.7%)대비 반등
- 3월 28일 국무원은 정식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발표,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운용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조례>에 따르면 각 성급 지방정부가 위탁한 운영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총 1조 5천억 위안이며, 그중 6,000억 위안이 주식시장에 운용될 것으로 예상.

그림 3 3월 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 50.2%로 예상치 상회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3월 통계국 PMI 지수에서 수요 회복(신수주-채고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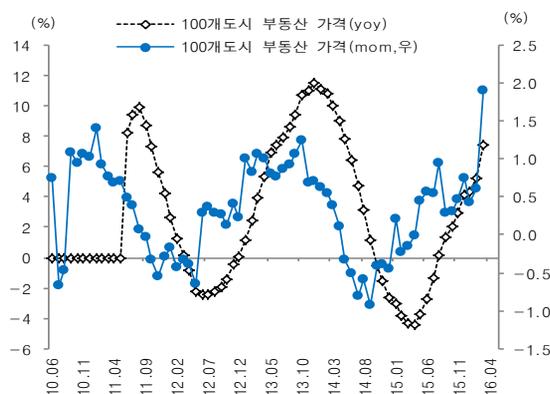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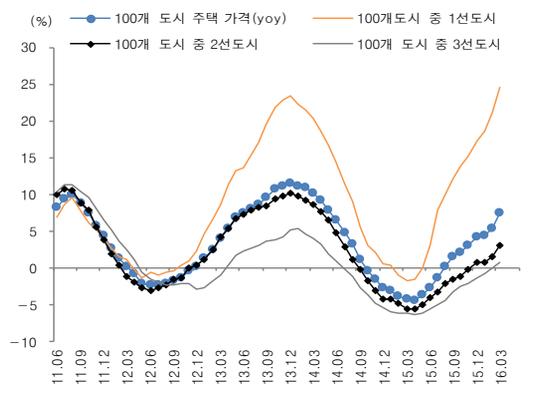
- 이번주 청명절(4월2일~4일) 연휴에 따른 상해종합지수 4일 휴장하며, 특별한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 지난 1일 발표된 3월 100개도시 부동산 가격지수(yoy) 7.4%로 전월(5.3%)대비 2.2%p 큰폭으로 상승. 1선/2선/3선 도시 각각 전월대비 3.5%p, 1.4%p, 0.7%p 상승. 3선도시는 21개월만에 플러스 반등 성공. 3월 부동산 가격지수 반등폭 확대에 따른 관련 업종 긍정적. 비록 1선도시 규제정책이 실시됐지만, 5월 증치세 개혁을 앞두고 2선/3선 부동산업 증치세 부양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5 3월 100개도시 부동산 가격지수 yoy 7.4% 상승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3월 3선도시 부동산 가격지수(yoy) 플러스 반등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 선호업종 : 화학, 보험, 운송 등

PVLT 업종 선호도는 상대성과(Relative Performance), 이익(Valuation), 유동성(Liquidity), 가격(Technical)의 네가지 변수 모델에 따라 0~10점 값을 갖는다.

지난주 선호업종이었던 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등은 평균 1.18% 상승해 0.52% 하락한 KOSPI보다 1.70%p 초과 상승했다.

4월 1주차 PVLT 선호업종은 화학, 보험, 운송 등이다.

조선이 선호업종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익 모델이 양호해진 기계, 은행, 보험, 운송이 새롭게 선호업종에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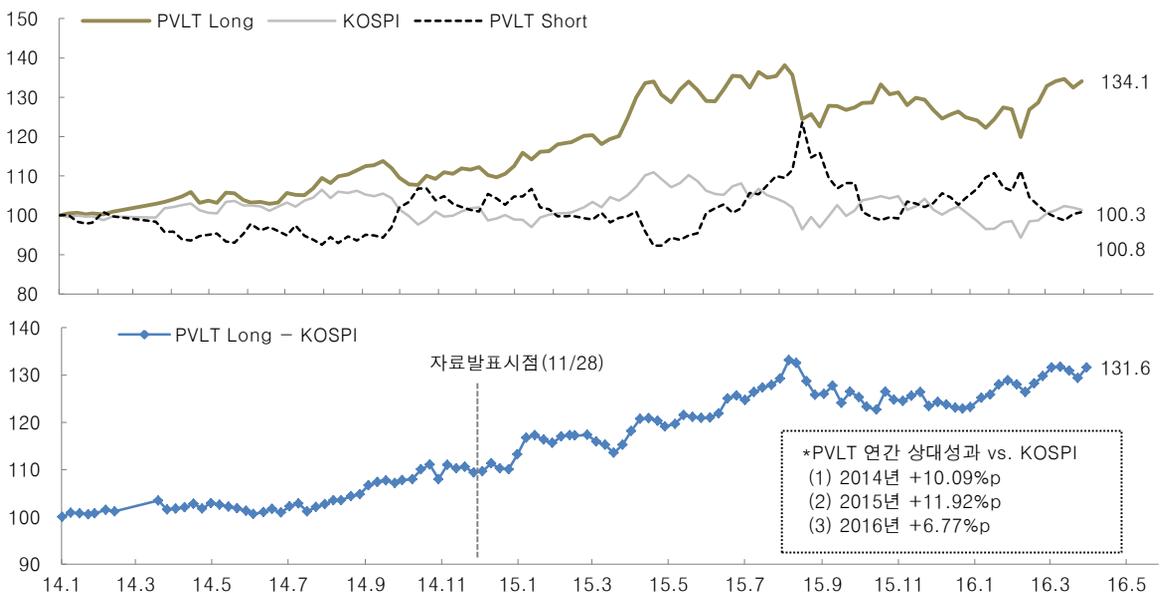
그림 1. PVLT 점수 = 주도력+이익+유동성+기술적분석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선호업종	비철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철강	조선	화학
	조선	에너지	건설
	에너지	화학	기계
	화학	철강	은행
	IT가전	건설	보험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비철금속등
PVLT 성과(%)	-1.63	1.18	
KOSPI 성과(%)	-0.42	-0.52	
상대성과(%p)	-1.21	1.70	

자료: W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호업종은 PVLT 점수 순서로 배열

지난주 PVLT 매수(8점이상)섹터가 KOSPI보다 1.70%p 초과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매도(2점이하)섹터는 KOSPI보다 0.03%p 상대적 강세였다. 지난주 후반 외국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매도쪽으로 선회했다. EPFR에 따르면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금주에는 선호업종내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던 보험, 운송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림 2. 2014년 이후 PVLT 성과 (1) Long : 8점 이상 (2) Short : 2점 이하



PVLT는 변수 모멘텀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8점 이상을 선호한다.

한 주간 보험(+3점)과 기계, 은행, 운송(+2점)등의 점수 상승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 11월 28일자 '주간 업종 선택 전략' 참조

그림 3. PVLT 변수별 현황 : 4월 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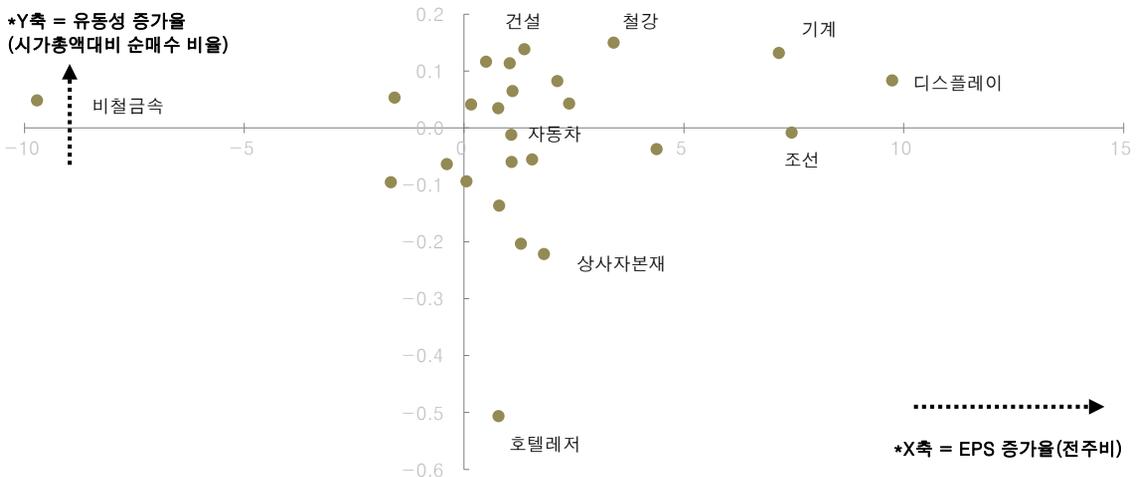
PVLT	Sector	전주비	SCORE			Valuatalon(3점)			Liquidity(3점)			Technical(2점)		Re.Price(2점)	
			04월 01일	03월 26일	03월 19일	EPS(12M fwd)		순매수(기관+외국인)			이동평균선 방향		이동평균선 방향		
						4주 +	12주 +	12주 +	4주 +	12주 +	유입 강도	4주	12주	4주	12주
선호	에너지	0	9	9	9	○	○		○	○	○	○	○	○	○
	화학	0	9	9	9	○	○		○	○	○	○	○	○	○
	건설	1	9	8	7	○	○	○	○	○	○	○	○	○	○
	기계	2	9	7	7	○	○	○	○	○	○	○	○	○	○
	은행	2	9	7	7	○	○	○	○	○	○	○	○	○	○
	보험	3	9	6	6				○	○	○	○	○	○	○
	비철금속	-2	8	10	10		○	○	○	○	○	○	○	○	○
	철강	-1	8	9	10	○	○	○	○	○	○	○	○		○
	운송	2	8	6	6	○	○	○	○	○	○			○	
	디스플레이	0	8	8	8	○			○	○	○	○	○	○	○
중립	조선	-3	7	10	10	○	○	○	○	○		○	○		○
	자동차	2	7	5	5			○	○	○	○	○	○	○	○
	반도체	2	7	5	5				○	○	○	○	○	○	○
	화장품, 의류	0	5	5	5		○	○		○	○	○	○	○	○
	건강관리	-1	5	6	5		○	○		○	○	○	○	○	○
	소프트웨어	-1	5	6	8		○	○	○	○	○	○	○		○
	IT하드웨어	0	5	5	3	○		○		○	○			○	
	유틸리티	-1	5	6	6	○	○			○		○	○		○
	미디어, 교육	0	4	4	4	○	○	○			○				
	IT가전	-2	4	6	9	○	○	○		○					
	소매(유통)	-3	3	6	6	○		○			○				
	필수소비재	2	3	1	1	○					○			○	
	증권	-1	3	4	4						○			○	
통신서비스	2	3	1	4					○	○	○				
비선호	상사, 자본재	1	1	0	1	○									
	호텔, 레저	-2	1	3	3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는 주간 업종 EPS(12M Fwd)와 유동성(기관+외국인)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주간 디스플레이와 기계의 이익추정치 증가율이 높았고 철강과 건설은 유동성 보강이 컸다.

그림 4. 이익과 유동성으로 본 업종 모멘텀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는 KOSPI100 PVLТ 선호도 결과이다. KT&G, LS산전, 현대차, 두산중공업 등이 선호종목에 편입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동부화재, 삼성중공업 등이 선호종목에서 제외되었다.

PVLТ 주간점수 상승 폭이 컸던 종목은 KT&G, LS산전 등이다.(그림 6)

그림 5.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1일	03월 25일	03월 18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PER	PBR	ROE
선호	자본재	두산인프라코어	1	10	9	8	9.4	58.7	38.2	10.9	0.6	5.4
	운송	대한항공	0	10	10	9	5.8	21.0	12.3	8.7	0.9	10.7
	소프트웨어서비스	엔씨소프트	1	9	8	9	4.7	6.7	20.2	18.0	2.7	16.2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0	9	9	8	3.1	7.6	7.3	46.7	0.7	1.6
	식품,음료,담배	KT&G	5	9	4	3	2.8	4.7	6.7	15.9	2.0	14.2
	소매(유통)	롯데쇼핑	0	9	9	9	0.0	2.6	10.3	15.2	0.5	3.2
	자본재	현대산업	0	9	9	8	2.1	17.0	18.8	11.0	1.2	12.0
	에너지	S-Oil	-1	9	10	10	5.9	22.4	21.8	10.7	1.7	16.8
	자본재	LS산전	3	9	6	6	-1.7	17.5	-0.1	12.0	1.2	10.7
	소재	OCI	-1	9	10	10	9.1	9.5	33.3	13.3	0.7	5.4
	자동차와부품	현대차	2	9	7	4	-2.3	1.4	0.3	6.9	0.6	9.5
	자동차와부품	한국타이어	-1	8	9	9	-1.5	-1.7	11.6	9.2	1.1	12.8
	은행	KB금융	0	8	8	6	1.3	8.3	-3.0	7.2	0.4	5.7
	에너지	SK이노베이션	-2	8	10	10	4.3	16.2	29.6	9.7	0.9	9.3
	에너지	GS	0	8	8	9	4.5	8.9	13.8	7.4	0.7	10.3
	은행	신한지주	0	8	8	8	-3.4	5.1	0.9	8.4	0.6	7.4
	자본재	포스코대우	0	8	8	8	1.7	12.6	31.2	11.6	0.9	8.1
	자본재	대우건설	1	8	7	8	-5.1	13.8	8.9	10.5	0.9	8.6
	자본재	대우조선해양	-1	8	9	10	-2.9	18.2	-0.8	37.5	1.6	4.2
	소프트웨어서비스	NAVER	0	8	8	8	2.5	9.8	-4.6	27.9	5.7	26.5
	자본재	두산중공업	3	8	5	6	2.5	26.4	1.2	16.1	0.6	4.1
	다각화된금융	삼성카드	2	8	6	5	3.8	11.2	28.7	13.8	0.9	5.9
	소재	롯데케미칼	-1	8	9	9	-0.9	5.2	38.0	9.3	1.3	14.9
	소재	고려아연	-1	8	9	9	-1.8	6.1	1.0	14.2	1.5	11.8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삼성전자	1	8	7	6	-0.7	8.6	1.5	11.7	1.0	10.1
	소재	POSCO	0	8	8	9	1.9	7.6	28.2	14.5	0.4	3.0
	소재	효성	1	8	7	7	-4.2	10.4	17.5	9.0	1.3	15.8
	자본재	SK네트웍스	2	8	6	7	-4.0	4.5	13.5	15.5	0.6	4.0
	자본재	대림산업	-1	8	9	8	-1.9	8.8	30.4	10.0	0.7	7.4
	자본재	두산	0	8	8	8	2.9	13.7	-3.2	11.7	0.6	7.2
은행	우리은행	0	8	8	8	3.5	8.2	6.8	5.6	0.3	5.5	

자료: Wises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전주비 상승 종목 (3점 이상)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1일	03월 25일	03월 18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PER	PBR	ROE
선호	식품,음료,담배	KT&G	5	9	4	3	2.76	4.69	6.70	15.92	2.01	14.24
	자본재	LS산전	3	9	6	6	-1.71	17.52	-0.11	12.03	1.21	10.71
	자본재	두산중공업	3	8	5	6	2.46	26.36	1.21	16.11	0.62	4.12
중립	자본재	삼성엔지니어링	3	4	1	4	-5.38	10.82	-27.49	11.66	1.91	25.90

자료: Wises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KOSPI100내 PVLТ기준 비선호 종목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비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4월 01일	03월 25일	03월 18일	주간	월간	YTD	PER	PBR	ROE
비선호	유틸리티	한전KPS	1	2	1	0	-5.8	-10.7	-28.5	17.0	3.7	22.0
	미디어	제일기획	-3	2	5	2	-3.1	0.0	-18.1	17.6	1.8	12.8
	자본재	삼성물산	0	2	2	4	-2.1	-9.4	0.0	57.6	1.4	2.9
	은행	기업은행	-2	2	4	6	2.6	3.4	-2.4	6.4	0.4	6.8
	증권	삼성증권	-2	2	4	4	-2.1	0.5	-6.0	12.2	0.7	6.7
	상업서비스와공급망	에스원	0	2	2	1	-1.3	-2.5	-10.2	21.7	2.6	14.5
	자동차와부품	현대위아	0	2	2	5	-4.2	-5.9	-8.0	6.8	0.8	12.2
	소재	한화케미칼	0	2	2	2	0.2	0.6	-11.4	9.9	0.8	8.2
	자본재	한샘	-2	2	4	4	-1.7	-10.6	-1.5	34.6	6.9	29.3
	자본재	KCC	-1	2	3	3	-1.3	-4.9	-2.9	15.9	0.6	4.4
	식품,음료,담배	오리온	1	2	1	1	1.2	0.1	-21.3	22.8	2.9	15.4
	운송	CJ대한통운	-1	2	3	3	-2.9	-4.4	-2.1	34.9	1.4	5.2
	호텔,레스토랑,레저	GKL	1	1	0	1	-5.7	-15.1	-8.3	13.5	2.8	21.6
	증권	한국금융지주	-1	1	2	5	-0.7	6.5	-10.7	9.1	0.7	8.9
	자본재	한국항공우주	-1	1	2	4	-2.4	-7.8	-16.4	24.1	4.3	19.8
	자본재	SK	0	1	1	2	-4.7	-10.1	-7.3	11.9	0.9	10.1
	통신서비스	SK텔레콤	0	1	1	0	1.2	-10.1	-2.6	10.9	0.9	9.7
	호텔,레스토랑,레저	호텔신라	-3	1	4	4	-2.8	2.8	-15.7	21.4	2.9	15.1
	식품,음료,담배	롯데칠성	0	1	1	2	-6.7	-12.6	-18.3	27.0	1.1	4.0
	자본재	CJ	0	1	1	2	-9.8	-16.8	-21.1	22.8	1.5	7.7
식품,음료,담배	CJ제일제당	-3	0	3	7	-3.8	-4.6	-8.5	15.5	1.4	10.0	
기술하드웨어외장부	LG이노텍	0	0	0	2	-1.0	-10.3	-20.6	12.5	1.0	7.9	
소매(유통)	신세계	-1	0	1	3	-1.7	-4.5	-11.7	10.9	0.6	5.9	
보험	삼성화재	-3	0	3	3	-1.7	-4.1	-5.5	16.2	1.1	8.7	
반도체와반도체장비	SK하이닉스	0	0	0	2	-3.3	-6.0	-8.3	9.1	0.9	10.2	

자료: W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Today's Data Snapshot

<Monday> Global Fund Flow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 신흥국 주식형펀드 5주만에 순유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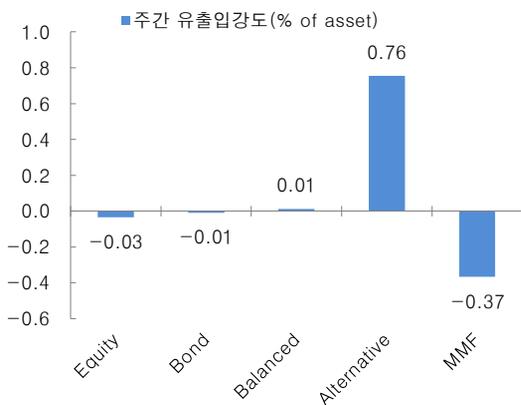
1. MMF 294.3억달러 순유출 : 대체투자 수요 증가. EPFR에 따르면 지난주 (3/24~3/30) MMF에서 총 136억달러 순유출. 주식과 채권에서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대체투자에 대한 선호는 증가(인컴펀드 등)
2. Equity 25.8억달러 순유출 : 선진지역(-19.7억달러)과 신흥지역(-6.1억달러) 동시 순유출. 최근 4주간 선진국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던 신흥국에서 5주만에 순유출 전환. 국가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자금유출이 커 AEJ(-10.4억달러)는 연초이후 가장 높은 유출강도 기록
3. Bond 3.6억달러 순유출 : 선진지역(-7.4억달러) 신흥지역(+3.8억달러). 연초이후 선진지역 순유출을 이끌던 북미에서 0.08억달러 순유출이 발생하며 13주만에 순유출 전환. 달러의 지지선 근접과 채권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해석. 신흥지역은 주요 신흥국 금리인하 기대로 순유입 지속

표 1. 자산별 자금 유출입 (W:3월24일~3월30일)

Asset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Equity	4466.2	4307.2	-1090.3	-2575.7	0.07	-0.59	-0.38	-50376.6	-0.73
Bond	6085.6	7667.6	5875.5	-361.1	0.53	0.68	-0.58	27687.1	0.77
Balanced	1847.5	863.3	1335.1	104.8	0.51	-1.40	-0.97	-11769.0	-1.52
Alternative	1492.9	734.4	1902.1	998.5	3.99	4.52	1.99	5175.4	4.03
MMF	-3558.4	-39425.4	-29433.3	-13600.6	-2.31	-1.04	2.37	-46666.1	-1.27
<b>(All Assets)</b>	<b>10333.7</b>	<b>-25852.9</b>	<b>-21410.9</b>	<b>-15434.2</b>	<b>-0.33</b>	<b>-0.40</b>	<b>0.20</b>	<b>-75949.3</b>	<b>-0.5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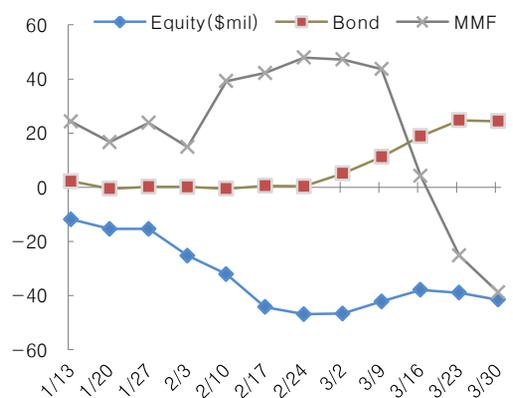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자산별 주간 유출입 강도(% of asset)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최근 12주 자산별 펀드 플로우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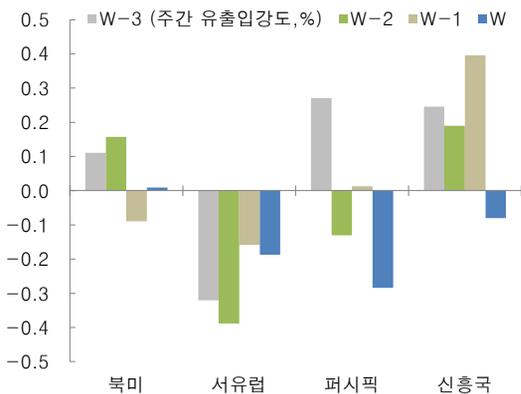
# 1. Equity

표 2. Equity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975.9	1592.5	931.5	684.7	0.29	0.59	3.18	9481.5	0.66
North America	4068.4	5758.8	-3325.8	358.8	0.19	-1.03	-3.33	-47748.7	-1.35
Western Europe	-3268.2	-3950.1	-1629.9	-1971.5	-1.04	-1.58	5.27	-14900.3	-1.46
Asia Pacific	953.2	-466.0	47.2	-1039.4	-0.13	1.35	14.63	5881.4	1.70
(All Developed)	2729.2	2935.2	-3977.0	-1967.5	0.00	-0.62	0.38	-47286.1	-0.75
GEM	2138.6	1428.2	2103.4	417.2	1.64	-0.15	-5.63	81.9	-0.19
Asia Ex-Japan	-801.1	-340.5	455.4	-1148.1	-0.58	-1.31	-10.45	-4180.1	-1.36
Latin America	252.0	312.5	169.0	104.5	4.27	6.16	-8.36	954.8	5.02
EMEA	147.5	-28.2	159.0	18.2	0.92	0.01	-5.77	52.9	0.05
(All Emerging)	1737.0	1372.0	2886.7	-608.3	0.73	-0.47	-7.77	-3090.5	-0.53
<b>*All Equity</b>	<b>4466.2</b>	<b>4307.2</b>	<b>-1090.3</b>	<b>-2575.7</b>	<b>0.07</b>	<b>-0.61</b>	<b>-0.48</b>	<b>-50376.6</b>	<b>-0.7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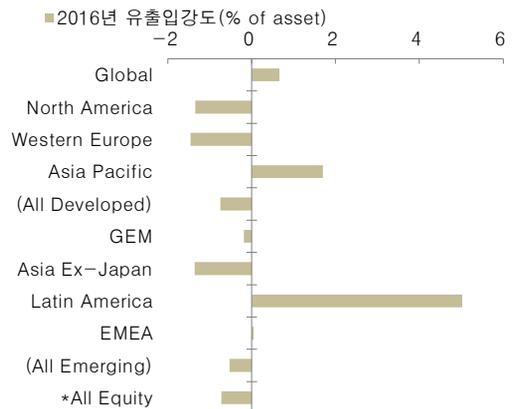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최근 4주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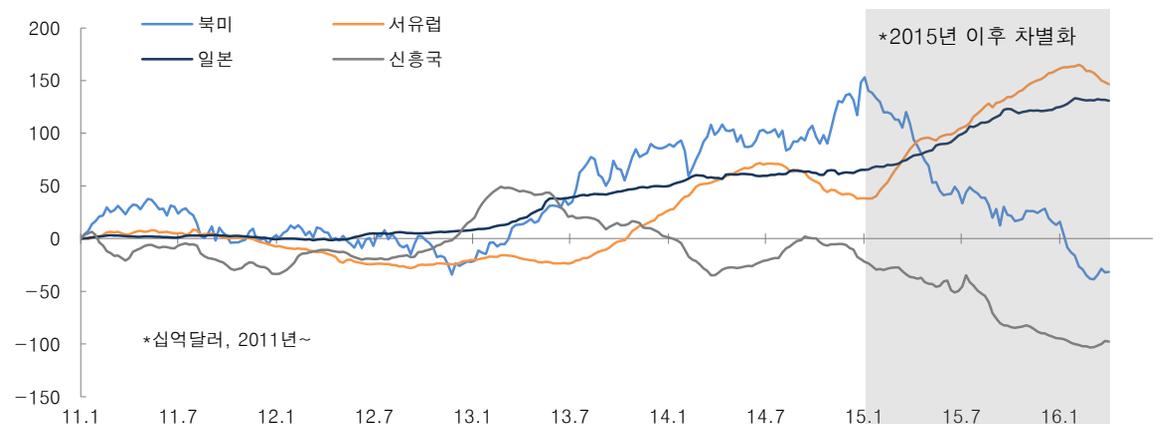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2016년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요국 주식 펀드플로우 추이 (2011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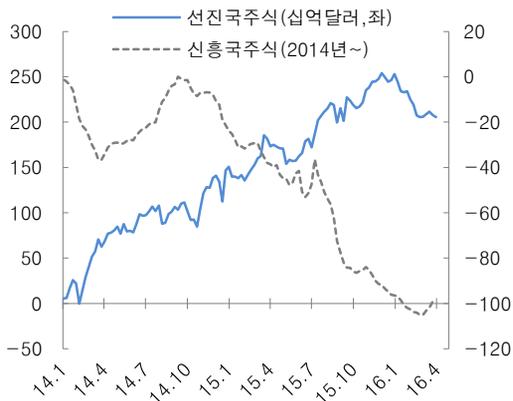
## 2. Bond

표 3. Bond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1027.5	2203.7	780.7	-624.1	0.52	-1.57	-5.13	-10026.0	-1.55
North America	4400.3	3112.0	1945.3	-7.6	0.46	2.00	2.78	41960.3	2.06
Western Europe	-252.4	1684.9	1783.2	-25.4	0.52	-0.57	-2.69	-1797.0	-0.32
Asia Pacific	-140.5	-97.3	-39.2	-83.1	-0.84	-2.95	-0.97	-1214.6	-2.88
(All Developed)	5034.9	6903.2	4470.0	-740.2	0.47	0.78	0.18	28922.8	0.87
GEM	898.5	649.3	1494.3	592.8	2.14	-1.17	-14.62	-1561.3	-1.19
Asia Ex-Japan	104.1	208.1	10.9	-231.2	0.15	0.37	7.66	603.4	0.96
Latin America	42.4	-90.3	-101.8	32.3	-0.89	-1.51	-27.42	-129.6	-1.06
EMEA	5.6	-2.8	2.0	-14.8	-0.11	-2.02	-11.31	-148.2	-1.76
(All Emerging)	1050.7	764.4	1405.4	379.2	1.41	-0.80	-10.63	-1235.7	-0.63
<b>Global</b>	<b>1027.5</b>	<b>2203.7</b>	<b>780.7</b>	<b>-624.1</b>	<b>0.52</b>	<b>-1.57</b>	<b>-5.13</b>	<b>-10026.0</b>	<b>-1.55</b>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주식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채권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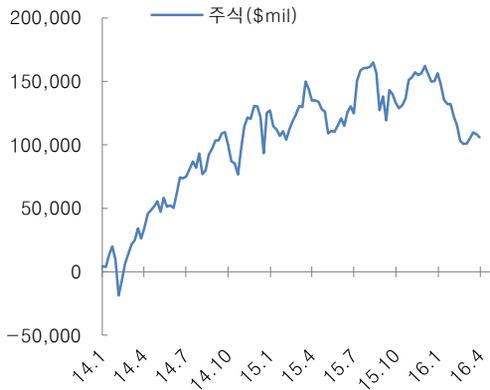
## 3. Equity\_only ETF

표 4. Equity(only ETF)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782.7	993.0	61.8	671.4	0.92	1.26	16.36	4323.3	1.61
North America	4727.2	7609.8	-501.0	1960.3	1.04	-0.08	4.55	-8575.5	-0.73
Western Europe	-1667.1	-3087.8	-819.9	-1176.1	-2.84	-4.32	10.59	-9437.7	-4.03
Asia Pacific	1564.1	-222.8	472.0	-857.8	0.49	2.73	20.89	5768.2	2.96
(All Developed)	5406.9	5292.1	-787.1	597.8	0.52	-0.11	8.48	-7921.7	-0.42
GEM	2090.6	1492.8	2418.4	684.5	7.24	3.60	1.01	3868.9	3.62
Asia Ex-Japan	-389.2	183.4	845.0	-906.5	-0.23	2.44	-4.63	2598.0	2.40
Latin America	226.4	241.8	119.9	79.0	5.38	9.95	2.21	1026.9	9.01
EMEA	117.6	7.5	112.8	34.5	1.92	1.56	-1.67	249.5	1.72
(All Emerging)	2045.4	1925.5	3496.1	-108.5	3.11	3.32	-1.69	7743.3	3.28
<b>*All ETF</b>	<b>7452.3</b>	<b>7217.6</b>	<b>2709.0</b>	<b>489.3</b>	<b>0.79</b>	<b>0.25</b>	<b>7.31</b>	<b>-178.5</b>	<b>-0.0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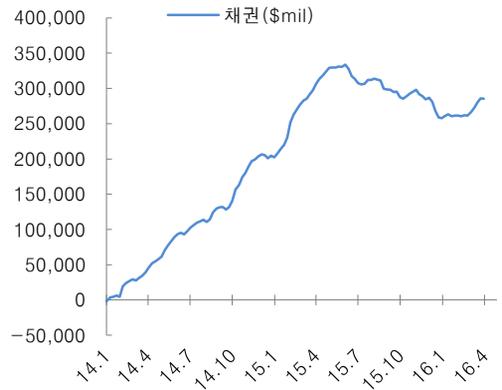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전체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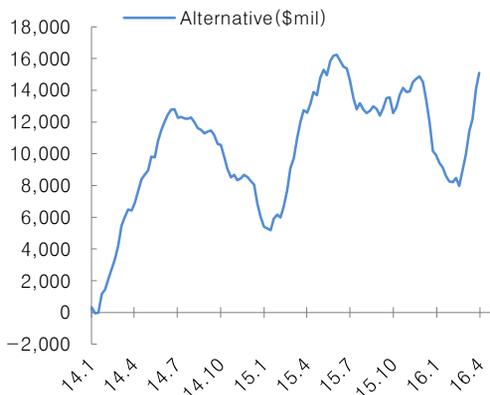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전체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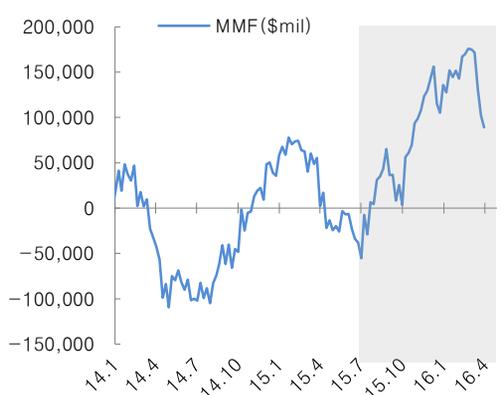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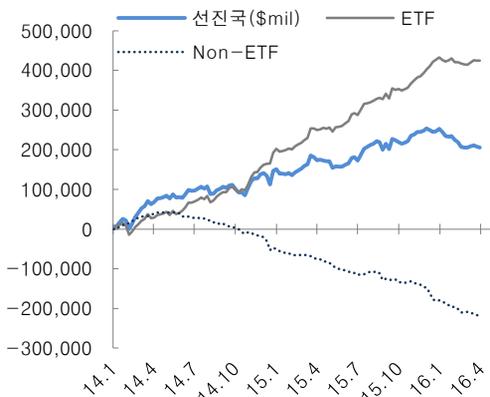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M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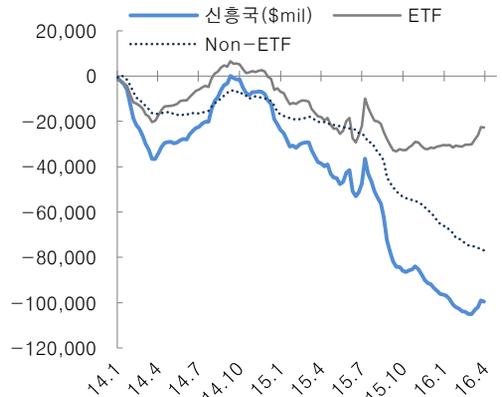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선진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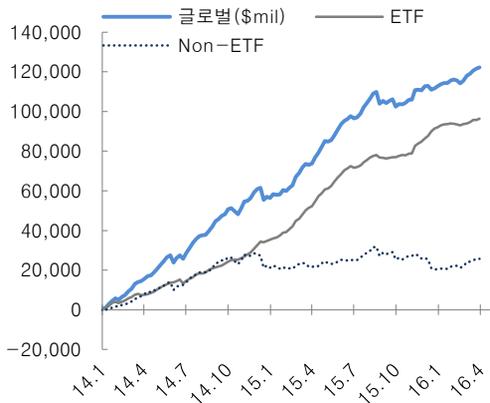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신흥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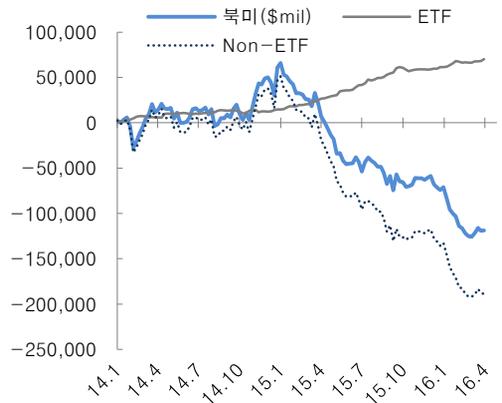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글로벌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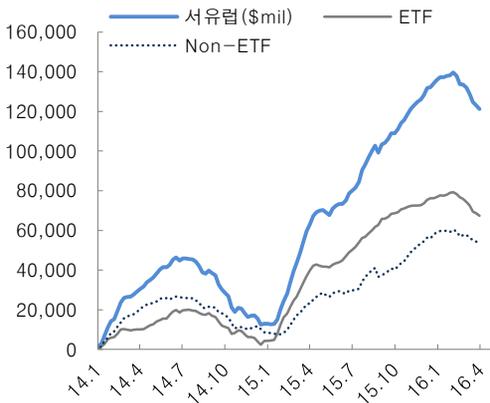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북미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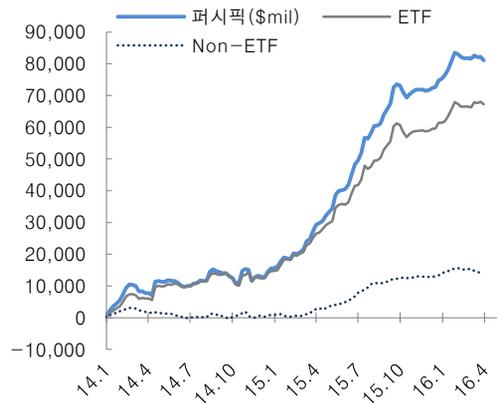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서유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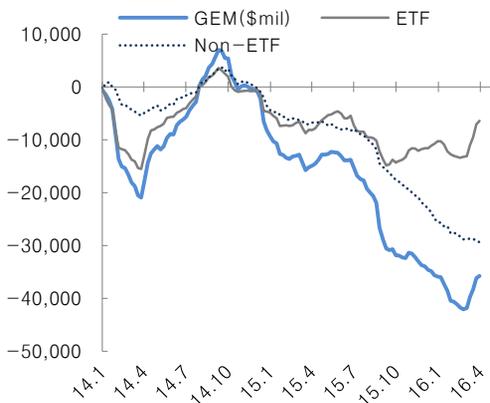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퍼시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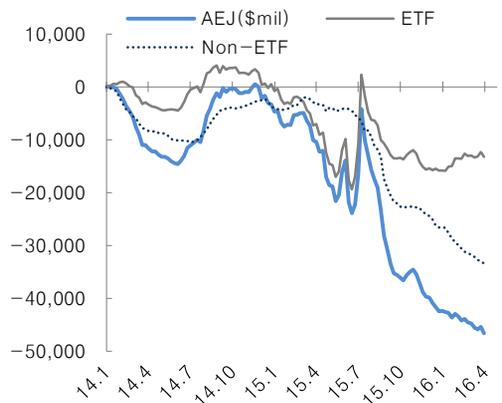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GEM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AEJ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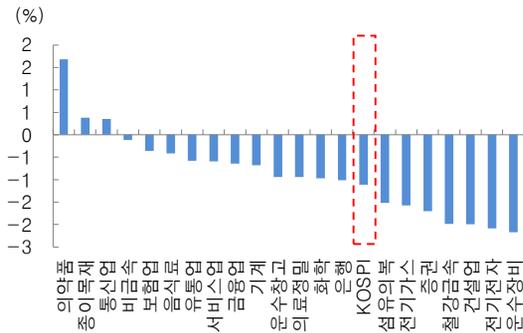
# Chart Alarm

## 01. 주가 등락률

- 1일 KOSPI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12% 하락한 1,973.57에 거래 마감
-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1억원 466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851억원 매수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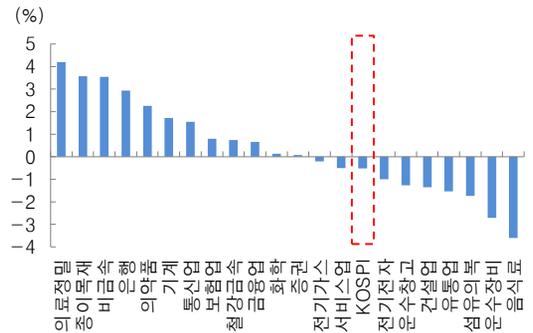
### ▶ 국내증시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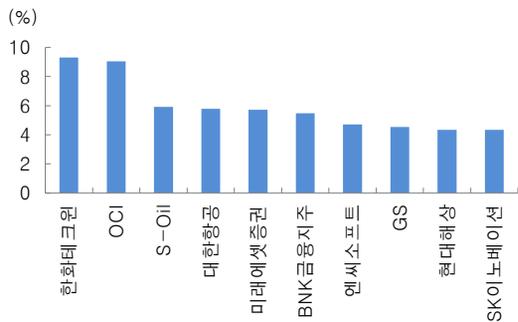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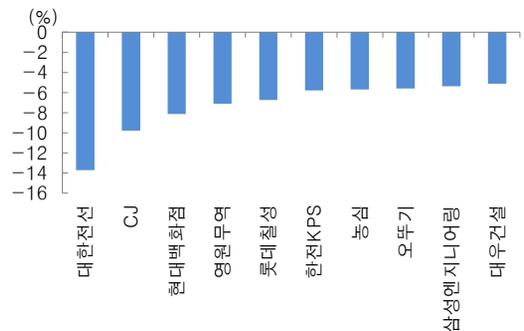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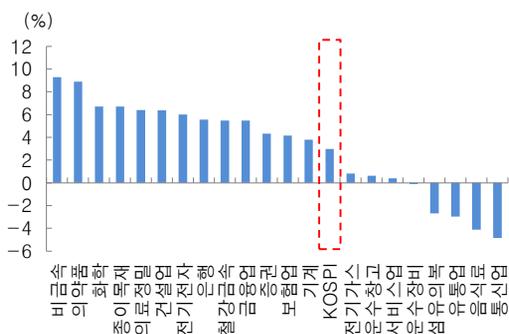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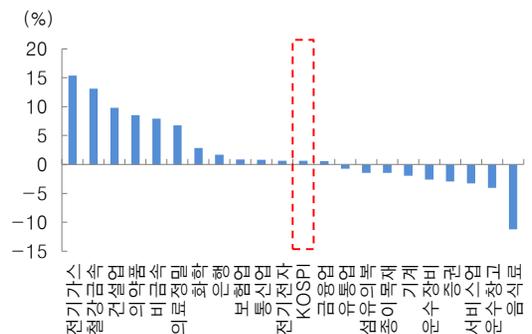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연간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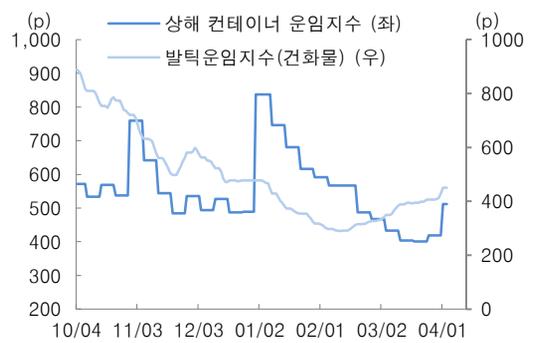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4.0% 하락한 36.79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6월 인도분이 전날 증가보다 1.0% 내린 온스당 1223.5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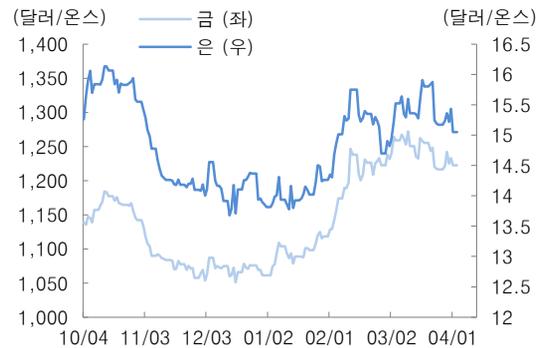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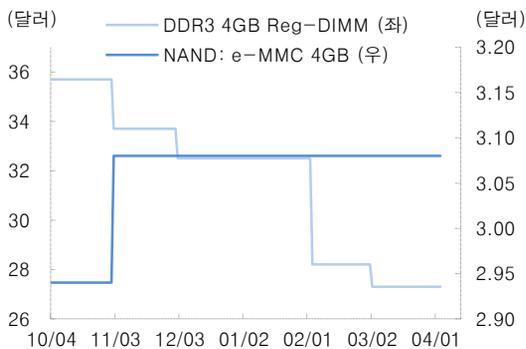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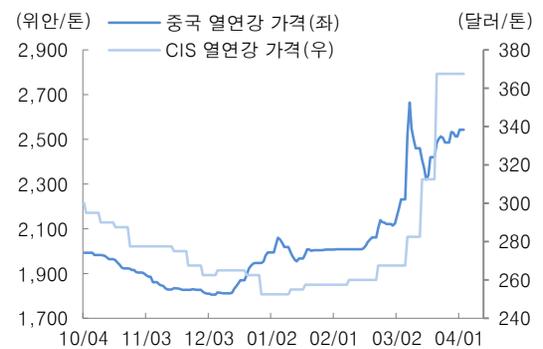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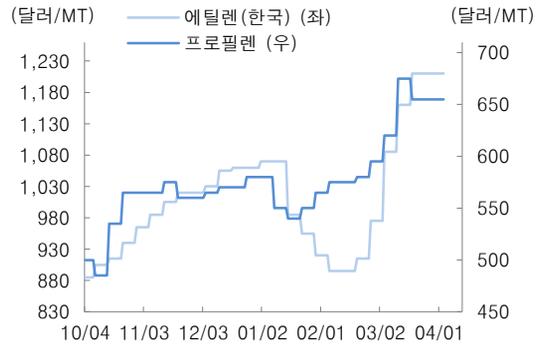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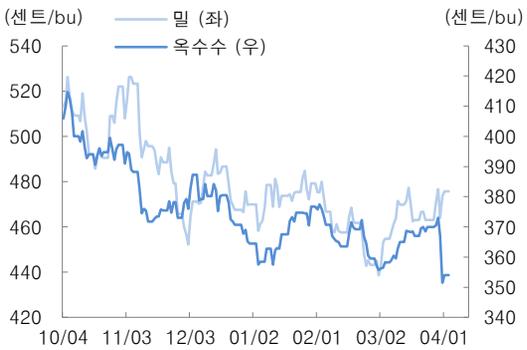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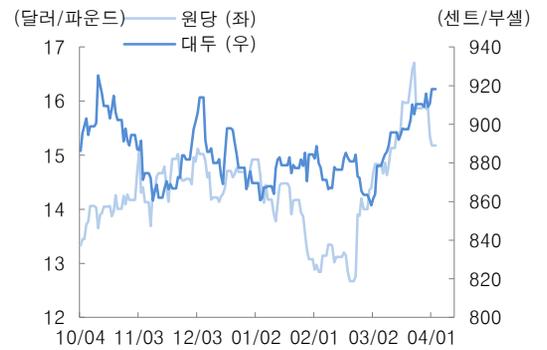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자료: Bloomberg

**원당,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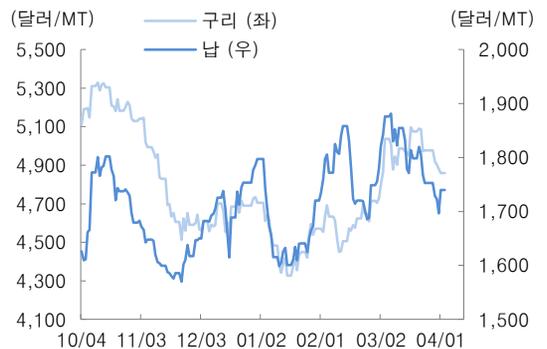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납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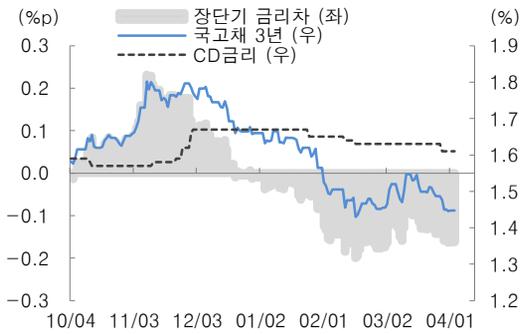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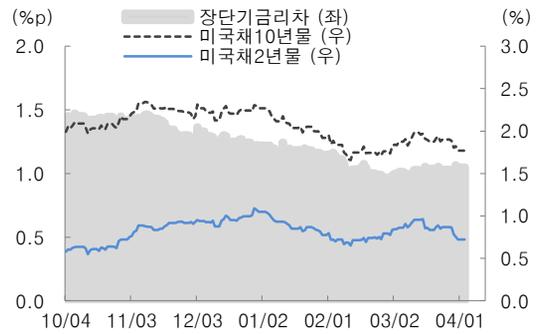
▶ 금리,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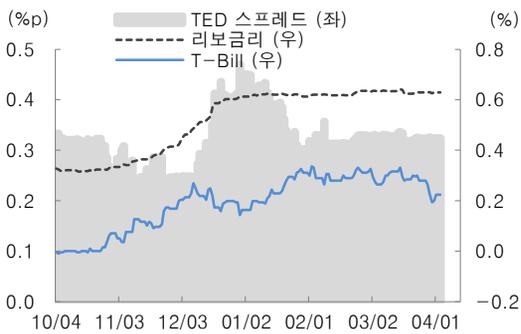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JP모건 EMBI 스프레드, Libor-OIS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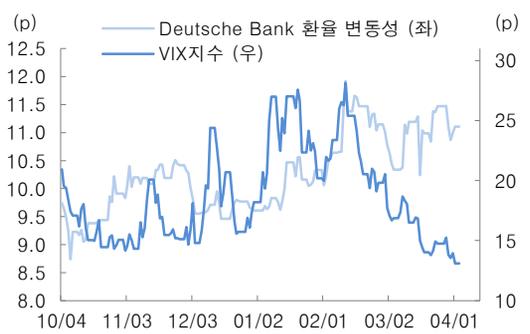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eutsche Bank 환율 변동성과 VIX 지수



자료: Bloomberg

# 매매 및 자금 동향

##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4/01	3/31	3/30	3/29	3/28	04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285.1	82.1	-126.6	-184.5	-25.1	285	-1,765
외국인	-210.6	-210.0	37.1	147.4	-12.6	-211	507
기관계	-46.6	57.5	6.8	-26.5	-32.0	-47	1,624
금융투자	176.4	62.1	89.6	12.0	9.4	176	879
보험	-46.5	-6.9	-4.7	11.0	-19.3	-46	2,537
투신	-98.1	-19.9	-69.8	-90.4	-34.5	-98	-763
은행	0.0	-2.5	-6.3	0.4	-5.1	0	-217
기타금융	-3.9	-0.5	-5.6	-0.3	-1.0	-4	-82
연기금	6.3	45.8	12.6	38.6	17.1	6	363
사모펀드	-75.1	-25.5	-11.5	-1.3	-10.7	-75	-1,019
국가지자체	-5.8	4.9	2.4	3.4	12.1	-6	-73

자료: Bloomberg

## ▶ 종목 매매동향

### 유가증권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하이트진로	61.2	삼성전자	97.3
한독	21.1	삼성전자우	16.3
고려아연	9.8	현대증권	15.5
한미사이언스	7.9	삼성물산	15.5
SK 하이닉스	7.7	기아차	15.1
한미약품	5.1	한국전력	14.4
동부화재	4.3	호텔신라	11.2
현대제철	3.9	삼성생명	10.5
이노션	3.6	한국항공우주	8.6
롯데케미칼	3.4	LG 전자	8.5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37.2	삼성물산	27.0
아모레퍼시픽	16.6	LG 화학	20.2
LG 생활건강	12.8	SK 하이닉스	18.8
하이트진로	11.2	현대모비스	17.8
삼성생명	10.4	고려아연	12.5
GS 리테일	8.8	SK 이노베이션	12.4
KT&G	8.4	삼성전기	11.9
BGF 리테일	8.1	신한지주	9.5
한미사이언스	6.8	POSCO	9.2
LG 디스플레이	6.7	SKC	9.1

### 코스닥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휴젤	44.1	바이오메드	2.5
SK 머티리얼즈	5.1	큐리언트	2.4
셀트리온	4.9	오스템임플란트	2.2
CJ E&M	3.5	파라다이스	1.5
코오롱생명과학	2.9	파트론	1.4
제넥신	1.9	서울반도체	1.2
NEW	1.7	모두투어	1.1
동국제약	1.6	아스트	0.9
덱스터	1.6	성우하이텍	0.9
게임빌	1.5	에이치멜비	0.8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셀트리온	14.4	휴젤	42.6
SK 머티리얼즈	8.2	AP 시스템	4.1
컴투스	6.5	에스에프에이	3.3
휴온스	3.4	매일유업	2.7
코오롱생명과학	3.3	한국토지신탁	2.2
에스엠	2.0	엘컴텍	2.1
에스티아이	1.7	메디투스	2.0
GS 홈쇼핑	1.4	성광벤드	1.7
뉴트리바이오텍	1.3	CJ 오쇼핑	1.4
테스	1.3	덱스터	1.4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하이트진로	66.8	-11.6	삼성전자	204.5	-1.2	삼성생명	68.7	0.9	SK 하이닉스	90.4	-1.2
고려아연	35.6	-2.4	삼성생명	46.9	0.9	POSCO	36.1	1.4	삼성물산	60.2	-3.4
SK 하이닉스	31.3	-1.2	삼성물산	36.6	-3.4	KT	31.8	0.7	고려아연	39.9	-2.4
NAVER	21.9	1.8	한국항공우주	34.9	-3.5	동양	30.9	6.8	현대모비스	30.9	-3.8
삼성에스디에스	21.3	0.9	호텔신라	33.9	-5.4	삼성전자	29.8	-1.2	하나투어	25.7	-9.8
한독	21.0	9.9	기아차	32.8	-3.8	OCI	29.6	9.1	CJ 제일제당	22.5	-3.2
LIG 넥스원	18.8	-1.4	삼성전자우	31.4	-0.6	LG 화학	22.9	-0.6	LIG 넥스원	22.4	-1.4
LG 화학	17.8	-0.6	KB 금융	17.9	0.5	현대건설	22.9	-1.6	LG 전자	21.9	-1.5
BNK 금융지주	13.1	4.1	CJ	14.2	-4.8	두산인프라코어	22.5	9.6	롯데칠성	21.9	-4.9
동부화재	12.8	-0.4	삼성전기	13.2	0.4	하나금융지주	20.1	2.4	SK	21.4	-2.8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4/01	3/31	3/30	3/29	3/28	04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126.2	-202.5	36.6	229.2	-18.1	-126	632
대만	-128.6	178.0	490.0	145.5	103.9	-129	4,852
인도	0.0	0.0	229.1	96.3	337.4	0	534
태국	114.3	51.0	242.6	20.3	9.6	114	658
인도네시아	0.0	31.3	0.4	-57.5	-36.6	0	315
필리핀	1.7	13.8	6.7	-8.6	-6.5	2	78
베트남	1.5	-8.4	2.7	-2.5	4.7	1	-46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스탁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스탁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